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425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6. 8. 28(금) 14:05 ~ 18:19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이범헌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대현 위 원 (인)

김상연 위 원 (인)

문삼화 위 원 (인)

서영수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임영욱 위 원 (인)

진 솔 위 원 (인)

차지언 위 원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성 원 보 고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42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25차 위원회에서는 오늘 본격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결안건 2건 그리고 보고안건 3건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그리고 비전을 위해서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가고 사무총괄을 해 줄 신임 박범수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가 대행 체제로 공석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노조위원회의 새로운 제24대 노동조합의 조준형 위원장님도 선출이 돼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립니다.
먼저 박범수 제8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박범수 사무처장은 경기아트센터 전략사업본부장과 사단법인 문화강국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고 현장과 전문적인 행정 역량을 쌓고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위원과 자체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사무처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 우리 위원회와 함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영의 박수로 신임 박범수 사무처장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조위원회 대표로 조준형 제24대 노조위원장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조준형 노조위원장은 90.4%의 투표율에서 단독 후보로 95.9%의 역대 없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고요. 노조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제가 안정감 있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위원회와 근로자를 대표해서 먼저 소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범수 신임 사무처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상견 인사를 드리시죠.

박범수 사무처장 :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네. 회의체니까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박범수 사무처장 : 네. 먼저 영광입니다. 국가 단위의 예술정책을 논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고, 제가 아르코의 일을 안 했으면 동시대에 살면서 뵙기 힘든 분들을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을 뵐 기회가 흔치 않기에 제가 인사말씀을 겸해서 실무 중심으로 사무처에서 앞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짧고 빠르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6개월 내에 벌어질 일들이고요. 저희 사무처가 대응해야 할 현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를 받으시겠지만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정부안 예산이 20%가 아니라 2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무처에서는 필요한 인력 확보와 이에 따른 조직개편 등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서 기관 창설 이래 전무후무한 변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저희 기관명칭이 Arts Council에서 ‘s’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나 'Arts Council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오히려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아르코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논의 속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저희를 비롯한 창작지원, 예술산업 그다음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이게 관건인데요.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향유 부분이 가칭 ‘진흥원’쪽으로 재편되는 논의가 지금 긴급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기조팀 중심으로 경영본부와 사무처가 총력을 다 해서 현안마다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예술인들을 위해서 창작지원과 심사는 저희의 엔카스(NCAS,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

템), 그런데 정산은 e나라도움에서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될 수가 없고 결국 문체부가 주도해서 1단계로 엔카스와 e나라의 통합이 6개월 내에 추진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인증명(예술활동증명)'이라는 어감 자체가 안 좋은데요. 미국으로 치면 사회보장넘버 같은 식별번호를, 예술인증명이 아니라 식별번호를 부여하고요. 그렇게 되면 예술인 식별부터 지원, 심사 그리고 심지어는 정산까지 6개월 내에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차원에서는 특히 내년도 예산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향유뿐만 아니라 창작지원과 인력육성 부분에도 350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작지원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안. 두 번째는 지원제도에 유입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발굴하는 방안을 둬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와 또 연관된 게 정부 차원에서 내년도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공식화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6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처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해주신 의결사항을 최선을 다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신임 박범수 사무처장님의 짧은 인사말만으로도 기구의 안정감과 위원회의 발전적인 기운이 느껴져서 적극 환영하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제24대 조준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조위원장의 인사말을 듣고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형 노조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4대 노동조합 위원장 당선인 조준형입니다.
먼저 96%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191명의 조합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9월 1일 본격적인 임기 시작에 앞서 본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과 갈증 같은 것이 투표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감을 절대 잊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예술지원기관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위원장님과 함께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당선인 신분으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차피 위원회와 사무처는 예술현장을 향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위원회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외부를 통해서 위원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자꾸 외부를 향해서 확산되거나 다시 내부로 재유입되는 사례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업무 과중과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위원회 내부에서 풀 수 있는 현안들은 위원님들께서 혜안을 보여주시면서 갈등 없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이것으로 신임 사무처장님과 신임 노조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두 분께 저도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이범헌 위원장 : 개회를 하고 나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성기숙 위원 : 네.

이범헌 위원장 : 오늘 회의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객관적인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뿐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니라 온라인 줌으로 전 임직원들 중에서 참여가 가능한 분들은 함께 참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의의 성원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개회를 하겠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네. 위원 11인 중에서 현재 10인이 참석하여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습니다. 진솔 위원님은 곧 도착 예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25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7년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칠레 테아트로아밀축제 참가 프로그래머 공모계획(안) 그리고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 등 의결 안건 2건과 2026년 예술지원개선 소위원회 임시회의 및 1, 2차 회의 결과 보고 등에 관한 보고 안건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먼저 아까 의사진행 요청이 있어서요. 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네. 발언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범수 사무처장님이 오셔서 매우 환영합니다. 424차 7월 전체회의 때 사무처장님을 승인하는 절차에서 위원님 중에서는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지난주에 저희 무용계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제가 마침 이쪽에 있어서 “배석을 해도 되냐?”라고 여쭙고 무용인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경청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회가 처한 변곡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술위가 미래지향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조준형 노조위원장님은 장기간 공석이었고 비대위 체제로 갔는데요. 우선 96%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반가워요. 창작주체사업을 공연예술팀에서 담당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익숙하고 저희와 굉장히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9년 3월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속기록이 공개돼서 2019년 3월 속기록을 보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 구현의 투명성을 현장에서 요구해서 속기록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고 있는데요. 7기, 8기 위원님들. 특히 6기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신 게 있어요. 제가 평소 느꼈던 위원회의 사무처와 비상임위원들의 역할론. 또 비상임위원의 권한과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전고필 위원이라든가 이원재 위원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게, 우리가 상호견제와 균형과 협력관계로 가져가야 되는데 조준형 노조위원장께서, 저는 오다가 제목만 봤습니다. 내용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요. 건강한 협력관계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발전적 모색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향후 그렇게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관계가 돈독하게 신뢰감을 가지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현 위원 : 위원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김대현 위원 : 저는 제안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네. 먼저 신임 사무처장님과 신임 노조위원장님께 정말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준형 노조위원장님의 메일을 봤는데요. 너무 구구절절 와 닿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처와 예술위원회는 정말 위계 없이 수평적 연대과정에서 공통목표를 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저는 신임 노조위원장님과 위원들 사이에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조위원회가 저희에게 바라는 것들을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서로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운영이 쉬울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도 잘 참고를 하고요. 지금 신임 노조위원회의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고 위원회와 회의가 아니더라도 일정이 맞으면 상견하고요. 중요한 문제들은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박범수 사무처장님께서는 전차 회의 내용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박범수 사무처장 : 네. 보고 계신 회의자료 3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에 개최한 424차 전체회의에 의결안건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그중에 2건이 원안의결, 2건 수정의결, 1건 유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전차 회의 결과는 3페이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지금 내용에 대한 부분은 3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대로 접수를 하고 의결사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4. 의 결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안건번호 제1221호 2027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과 관련한 칠레 테아트로아밀축제 참가 프로그래머 공모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안녕하십니까, 교류협력팀장 유병은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2027년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칠레 테아트로아밀축제 참가 프로그래머 공모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월에 진행되는 정시공모 안에 사업이 포함되는 게 맞는데요. 해외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 등의 이유로 저희가 정시공모에 담지 못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별도로 의결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겠지만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나 시각분야 쪽으로 80~90%가 쏠려 있어서 저희가 공연예술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2가지 전략. 글로벌사우스 중점 기획자, 매개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우선 테아트로아밀재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테아트로아밀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월 중남미 최대 규모의 현대공연예술 국제 페스티벌이고요. 2026년 올해로 제33회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겠지만 중남미 쪽에는 멕시코의 세르반티노축제와 칠레의 테아트로아밀축제가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축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게 많은 베뉴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관객들과 만나는 게 초점이라고 하면, 테아트로아밀도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이 축제 기간에 공연예술전문가 교류프로그램 플라테아아밀이라는 기획자들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에는 이 프로그램의 프로그래머 2인을 선정해서 내년 1월말에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려는 내용입니다.
각각 사업예산은 1인당 500만 원으로 해서 2인으로 1,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항공료와 숙박비 일부를 지원하고 테아트로아밀에서는 숙박비 일부와 프로그램 참가지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만약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 공모를 올리고 지원신청서 행정 검토를 통해서 10월 1일에 현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10월 2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참가했던 단체들이 있는데요. ☆☆☆☆ ☆☆☆, ★★★★★★★, 극단 ○○○○, ●●●, 극단 ◇◇, ◆◆◆◆ 등이 있고요. 테아트로아밀의 동일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은 □□□의 □□□ 감독, ■■■■의 ■■■ 대표님, △△△△의 △△△님 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교류협력팀의 유병은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거수로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 29분 진솔 위원 회의 참석)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대현 위원 : 팀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이 사업을 발굴할 때 레지던시 사업이 문학과 시각에 많이 몰려 있어서 공연 쪽에서 사업을 발굴한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글로벌사우스를 지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레지던시가 글로벌사우스 같은 경우에는 1세대에서 소외되었던 것을 발굴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공연 같은 경우 아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없었는데 굳이 글로벌사우스를 지정한 정책적 목표 등이 있을까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제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시다시피 영미권이나 유럽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적으로 위상이 올라가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서 경제사정이 굉장히 나빠서 예전과 같이 상호로 주고받고 할 경우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 파트너로 중동이나 중앙아시아와 같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비슷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할 수 있는 국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에서의 국제교류의 판로를 개척할 때 민간에서 20~30년간 지속적으로 진행돼서 이제 공공의 지원이 없어도 되는 국가들보다는 아직은 민간 쪽에서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시장이라서 저희 공공 쪽에서 먼저 시장을 뚫어야 하는 것들이 글로벌사우스의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글로벌사우스 국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아직도 유럽 중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사우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짧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작년에도 중남미 칠레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예술위에서 지원하는, 굉장히 역량 있는 한국무용 단체가 중남미 공연을 갔는데 예술위에서 지원한 것들이 있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은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문화강국, 문화선진국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유럽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남미. 앞으로는 아프리카 등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로 확대를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향후 단기가 아니라 장기 플랜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칠레는 내년 초에 처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9월 중순에 제가 직접 멕시코와 칠레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칠레 테아트로아밀 외에 같이 협력을 맺을 수 있는 파트너 기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게 사업화될 수 있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두 분의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답변처럼 우선 비전사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취약한 교류 국가를 보완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요.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최근 활발한 국가 간 문화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4일부터 저도 우즈베키스탄 문화부하고 MOU협약을 위한 참가를 하고요. 그 협약에 따라서 직접 교류에 대한 상호협약을 맺게 됩니다. 다녀오면 9월 중순에는 중앙아시아 3개 국가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데 그중에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수행단과 문화부. 그리고 문화교류 협력을 위한 협약 준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과 많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데요. 방금 위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과 발전을, 조금 더

K-문화강국을 위한 방향의 도약을 삼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유럽이나 선진국 중심으로 국가교류 협약사업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중동국가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은 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의 교류협력을 넓히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진행이 될 때는 진행업무 보고를 통해서 함께 의논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더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의견을 주십시오.

왕치선 위원 : 꼭 이 사업에 대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들의 많은 부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은,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면 약간 머뭇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성과를 얘기할 때 축제의 성과가 국내공연 1,701회, 국제공연 764회, 관객 1,400만 명 이상이라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받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축제에 참가하시는 분 보내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셔서 어떤 것을 해야 우리한테 성과가 되는지에 대한 목표는 조금 설정을 하고 보내야되지 않을까요? 갔다 오신 분들은 늘 좋았다고 하잖아요. “아주 잘 됐다.”, “좋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참가하시고 선정되셨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을 내보냈을 때 무엇으로 이분들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우리가 직접 가지 않아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것은 돈도 조금 주니까 넘겨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을 해도 이런 것들로 성과를 얻었다는 수치나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항상 저와 구문모 위원님이 사석에서도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다른 사업의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과 평가 진행과정에서의 간섭의 의미가 아닌 그런 후속지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지향하는 교감을 가지고 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혹시 유병은 팀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함에 있어서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제교류를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가셔서 중남미의 공연예술 시장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그쪽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요. 그다음에 칠레나 멕시코, 스페인이나 어쨌든 스페니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유럽과도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거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쪽에서 만나서 느끼고 만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지금 제가 상상하고 있는 지점들은 ‘국제공동창·제작’이라는 더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의 어떤 과정들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의 예산이 다행히도 많이 증액돼서 저희는 인바운드 국제협력 강화, 국내에서 진행하는 리서치 사업들을 조금 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년 초에 가신 분이 그쪽에서 작업을 하고 싶은 분을 만나면 한국으로 초청해서 같이 30일간 체류를 하면서 서로 리서치하고 배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시발이 돼서 국제공동창제작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알겠는데요. 그건 정서적인 얘기고요. 실은 비예술적인 얘기지만 인풋대비 아웃풋이 얼마가 되었느냐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장을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앞으로 참 좋을 거야.”라는 것은 저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예술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행 기관이잖아요. 실행 기관으로서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성과가 이만큼이 났다는 것을 비예술적인 방법으로, 수치나 계량으로 네트워킹이 얼마나 늘었다거나 우리에 대한 검색이 얼마나 늘었다는 등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결과 보고 안에 누구를 만났고 그분의 직책 등을 봤을 때 이분과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결과 보고서 안에 얼마만큼 향후 사업계획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구문모 위원님께서도 이 정성적인 것을 정량화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찾아뵙고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실제로 지원하는 전 분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사무처에도 그런 방향에 대한 지침을 조금 더 논의하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9기 위원회에서는 그런 체제도 조금 더 구체화 되고 팩트 있는 사업지원과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그리고 그 수치뿐만 아니라 비전을 만드는 분석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이미 사무처에서도 상당한 수준으로 보완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솔 위원 : 일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의견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왕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아무래도 국제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제가 아르코에서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국제교류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면 주변의 인식이나 그런 데에서도 아무래도 국내 쪽보다는 국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표화 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멀다 보니까 그런 지표를 명확히 해 주시면 아마 다른 분들도 성과를 판단하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를 잘 설정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런 부분은 사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더 탄탄히 해서 해 주세요.

서영수 위원 : 공연예술분야에서 국제교류 사업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연극인은 혼자서 남미 쪽을 3~4개월 다니시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워크숍을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시아권에서도 아시아 각국의 공연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워크숍 공동작업도 있는데요. 거기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술위에서 하는 국제교류사업이, 지금 이런 방식의 사업은 좀 아니지 않느냐?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에서 1,000만 원을 주고 고작 2명을 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임팩트나 파급력, 확장성을 봤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남미라고 하면 남미 공연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창작자들이 모이는 창작 관련 워크숍도 있을 것이고요. 기획자들의 모임도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의 남미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예술가 10명 정도를 뽑아서 1인당 1,000만 원씩 하면 1억이잖아요. 그래서 10명이 넘어가서 그쪽과 충분히 교류하고요. 그분들이 다시 한국에 오면 그분들 중심으로 남미에서 교류하고 같이했던 성과들을 한국인 예술가들과 워크숍도 하고요. 그리고 다방면으로 작품교류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계별로 해야 사업의 실효성도 있고 임팩트도 있을 텐데요. 앞의 '☆☆☆'도 알고 여러 팀들을 아는데 1~2명이 가서는 그분들 개인적 경험 차원에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제교류 예산이 늘면 사업을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잔잔바리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중요한 의견 말씀, 주무부처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 사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 요청해서 소액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또 인바운드 정책, 아웃바운드 정책. 이건 기획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의 크기도 달라지니까 그런 다양성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요. 부분적으로 1~2명으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 팀장님이 짧게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하세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린 해외레지던시참가지원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만들거나 공동창제작지원이 아니라 개인이 해외에 나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무는 것에 대한 경비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좀 잔잔바리로 진행이 되고요. 규모가 있게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최대 1년에 1억, 2년으로 1억 5,000만 원까지 해서 작품제작을 하는 프로젝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시공모 때 사업을 담아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리고 이런 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잘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진행하기 전에 보고(안)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 것도 사업의 중요한 발전을 지향할 수 있으니까 사전논의도 항상 충분히 주무부처의 팀에서는 논의를 해 주고요. 필요하면 언제든지 사무처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면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 사업은 정시공모도 있지만 계기성으로 지원하는 게 많아서요. 저는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심사위원을 추천하라고 할 때 여러 차례 트랙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들 말씀도 있으니까 국제교류팀에서 베니스비엔날레를 비롯해서 아르코앙상블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음악콩쿠르컨퍼런스나 지역 관련 레지던스 사업. 그래서 여러 트랙이 갖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에 대해서 통으로 묶어서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하면서 우리 예술위가 해야 될 우선순위 사업 또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과 특화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걸러가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는 사무처 중심의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조직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는 개편하는 구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협력팀도 국제교류협력팀으로 할 것이냐는 명칭 문제도 조금 더 고려를 하고요. 사무처장님은 포괄적으로 그런 것을 집약했다가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네,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혹시 더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의 의결에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있으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222호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입니다.
이 건에 들어가기 앞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 위원님 먼저 하시죠.

차지언 위원 : 네. 먼저 저는 지난 8월 7일 감사실을 통해서 본 안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임을 확인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개인적으로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저의 경우 본 안건과 관련해서 이해충돌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그것을 전달해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적인 해석을 떠나서 관련된 분들의 정서적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나아가서 범 무용계의 발전을 위해서 본 안건에는 회피하기로 결정함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는 사실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언론보도로 인해서 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비상임위원으로 취임해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늘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다짐을 드렸습니다. 지난 7월에 있던 마지막 발언도 제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국무용제를 누가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상관하지 않고 무용계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진 전국무용제가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기만 바란다고 제 마지막 발언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런 무용계의 이해관계나 이런 입장에 대한 벽을 뛰어넘어서 무엇이 무용계 전체를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늘 공정한 의결을 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문 위원님.

문삼화 위원 : 일단 여전히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배웁니다. 배우고 또 배웁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대한민국연극제 예술감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어쨌든 그것이 이해충돌 사항에 행여라도 저촉될 것 같아서 저도 회피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연극협회 이사로 선임은 되었으나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한 달도 안 돼서 우리 위원회에 위촉되는 바람에 바로 다음 달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한국연극협회 이사로서 의결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시도를 했다가 그냥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로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깨끗하게 회피를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모든 장르를 대표하는 분들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시고 저 또한 그중에 한 명으로서 분야별 혹은 활동한 특정 단체, 기관에 의해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사안이 늘 있을 수 있으므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뇌의 결단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겠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론 기간을 유예해서 오늘 의결안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토론의 부분들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현안보다 위원으로서 한 장르를 대표해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한 장르에만 있지 않고 주요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를 역임하게 돼서 활동한 관계로, 이 기회에 짚어 보니까, 저는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에 의무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서 저는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이 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활동한 여러분야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전 사업의 현장 필드 활동을 거의 다 거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모든 안건과 사안에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발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요. 더 좋은 비전을 만드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3개의 지정교부 사안이라서 이 안건에서는 저도 회피하는 게 객관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지난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가 있을 때 혹은 의견 토론이 있을 때 충분히 한 달 이상 논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서면으로 소명자료도 받아서 사무처에서는 자료가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부 회피를 함으로써 조금 더 위원회가 도약하는 계기, 또 하나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위원회도 쇄신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도 쇄신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합의체 위원회로서 집행기구로 운영하는데 조금 더 보완적인 혁신안이 필요하다면 함께 논의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분야의 위원님들께서도 관여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도 발생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어떤 문제 제기나 어떤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발전 방향과 모색 그리고 실제 행정사무 효율에 대한 부분과 중앙부처 특히 주무부서인 문체부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가치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솔선수범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당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결사항에 직접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선의의 회피라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 또한 그런 범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3명이 이 의결안건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될 경우에 안건 진행을 임시로 맡을 대행 위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시 의장으로서 우리 규정에 따라 최연장자인 구문모 위원님께서 맡아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굳이 여쭙기보다는 소신 있는 위원님들의 판단이고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좋은 선례를 남기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도약하자는 취지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짧게 요약해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연 위원 :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최근 여러 보도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혼자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한 가지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연 좋은 선례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굉장히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위원님들께서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위원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의결을 회피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주변에서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경우 모두 의결을 회피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때그때 케이스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굉장히 주관적 의견에 휩쓸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선례가 남았을 때 이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저희는 매번 심의나 매번 의결 때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체에 있는, 지금 제가 볼 때 문삼화 위원님과 차지언 위원님이 협회 회원으로 계신 건데요.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모두가 수혜를 받을 협회의 회원으로 계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의결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회원 신분을 갖고 있는, 오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희가 지정교부사업을 의결해야 되는 이 단체들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분들은 전부 다 회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오늘 회피를 하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의견에 동의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혹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차지언 위원 : 지금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 한국에서 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용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학술분과위원장이라는 직책은 갖고 있지만 사실은 임원이 아닙니다. 제가 문체부에 제출된 대한무용협회 임원 명단에도 저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고요. 저는 그냥 일반회원 중에 회원들이 학술적인 관심 있는 것을 도모하는 사람들 안에서 제가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선출되었을 뿐이라서요. 제가 언론에 보도된 만큼 그렇게 힘 있는 임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일개 회원으로 여태까지 쭉 지내왔을 뿐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문삼화 위원님은 혹시 답변 사항이 있으세요?

김상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 의결에 회피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자유인데요. 이게 선례가 되었을 때 다음부터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회피를 하실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아시고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회피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이 더 없는지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의 말씀을 참고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문삼화 위원님, 차지언 위원님이 아주 고충과 고뇌의 결단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위원장님께서 잠시 전에 말씀하신 것은 정서적인 문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이해충돌방지법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규정한 지원심의운영규정 제11조에 다 저촉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의결기구인데 정서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상충되었을 때 회피하는 것이지 만약 정서적으로 회피를 한다면 굉장히 무책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과 지침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이 정서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다면 세 분의 위원께서 회피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6월 보고 안건으로 예술위 지정사업 결정의 건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회피가 되는 위원님들이 전차회의 때 우호적이고 옹호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박범수 사무처장님이 무용인 간담회 때 들으셔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저도 그 장소에서 처음 알았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25년 12월에 전담심의위원을 하셨던, 서울시 무용단장을 지냈고 무용계에서 대표적인 무용가고요. 지난 1월에 뉴욕 베시 어워드. 이것은 무용의 아카데미상입니다. 그 상을 수상한 ○위원이 작년 12월 전담심의를 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본 안건 사항이 아닐 때는 의견을 절제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이해충돌로.

이범헌 위원장 : 이해충돌 거기까지 안 하고 이 사안에 집중해서 하셔도 되니까요. 그렇게 부연 삼아서 하지 마시고요. 마무리로 짧게 끝내세요.

박범수 사무처장 : 제가 보기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라서요. 왜냐하면, 그날 사실.

이범헌 위원장 : 우선 마무리를 빠르게 마쳐주세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이범헌 위원장 : 마무리를 하고 나서 사무처장님은 발언해 주세요.

박범수 사무처장 :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1분만.

이범헌 위원장 : 마무리를 끝내고요.

박범수 사무처장 : 앞으로 발언하실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것 같아서요.

이범헌 위원장 : 이것만 하고 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그래서 행정소송을 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상연 위원님께서 선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이해충돌과 지원심의운영규정. 다른 기관도 나름대로 규정이 있고 그런 것이 다 준용이 됩니다. 저는 우리 예술위의 과거 그런 선례가 있었는가? 제가 과거 위원회 관련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은 서류로 충분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전차 회의 때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 중에 한 분이 지방문화재단의 대표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지원한 사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사무처장께서 회피, 제척에 다 해당이 된다는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박종관 위원장님이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제척이 바람직하다고 했고 사무처장은 회피, 제척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해 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삼화 위원 : 죄송합니다. 과거의 이력을 왜 듣고 있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범헌 위원장 : 사례적인 것이고 그 사안은 이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기숙 위원 : 선례가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아닙니다. 여기까지 발언을 중지하시고 사무처장은 답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범수 사무처장 : 이것은 그냥 팩트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 이름이 언급돼서요. 그날 사실 팩트는 ○심의위원께서 본인이 원해서 비공개 면담 요청을 1:1로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1:1로 제 방에서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사무처 직원들에게 얘기를 안 하고 본인의 의사대로 1:1 만남을 예상했으나 막상 오신 것은 위원님과 다른 7명의 분들이 오셔서 사무처장과의 간담회라고 해서, 그냥 팩트 차원에서요. 그분의 애초 요청은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충돌에 대해서 사무처장과 1:1 비공개 면담을 요청했던 것이 팩트고요. 그것이 본인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7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대화 내용이나 참여 인사 내용을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중지하세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안건 의결에 비유할만한 직접 관계가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사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절제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토론도 마찬가지로 정말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만 가지고 의견 토론을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연 위원 : 위원장님.

이범헌 위원장 : 우선 김상연 위원님, 짧게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김상연 위원 :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정교부 사업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리스크가 될 만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가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지언 위원님의 발언에서 법적으로 자문을 구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기숙 위원님 말씀으로는 법적으로 제척사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객관적 팩트인지 체크가 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의결이 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돼서 의결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없애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회피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의결을 안 하실 텐데요. 회피를 하시는 이유가 법적으로 제척이 되느냐? 아니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정서적으로 내가 회피를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김대현 위원 : 이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효율적으로 짧게 요약해서 해 주세요.

김대현 위원 : 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제척사유는 규정입니다. 규정에 있을 때는 제척하는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공정성이나 우려가 있을 때 이것은 주관적 판단으로 회피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제척사유라면 사무처나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제척사유라고 주장만 갖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선례 말씀이 나왔을 때 지난 2025년 국정감사에서 회피 사유에 대해서 국정감사 조사 사유가 있었습니다. 특정 의원께서 관련된 조직들에 대해서 지원금이 갔을 때 “회피를 해야 하는데 회피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이 나왔을 때 그 회피 사유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것은 사례적인 것이라서 사무처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이해관계충돌, 이해출동에 대한 부분으로 회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가 안 된 의결에 대해서 집행된 사안에 대하여 사후 결과에 대한 것이 진행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혹시 사례를 찾아봐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요약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구문모 위원 : 이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김상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저희들이 판단할 때 “법적이냐? 정서적이냐?”라고 얘기하면 정서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약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언론에 의해서 우리의 의결하고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수준의 언론이든 간에 이것을 악의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 팩트를 체크했을 때 아니라고 하면 그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안 되면 계속 누적될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가 해산될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판단을 못 해요.

이범헌 위원장 : 네. 그 의견도 중요한 사항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저.

이범헌 위원장 : 짧게 요약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발언 기회는 안 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받고 숫자도 가급적이면 균형 있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필요한 것을 요약해서 발언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우선 사무처에서 마련하고 있는 지원심의운영규정 제11조를 준비했다가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모르시니까요. 우리 예술위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조금 이따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을 바로 잡고자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명단을 누가 간담회가 오실지 달라고 요청받았는데 늦어져서 명단을 미처 못 드렸다는 말씀을, 무용인 간담회 때 1:1로 만나는 게 아니고 명단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그분이 명단 드리는 것을 놓쳤다고 했고요. 저는 그날 15분쯤 일찍 가서 사무처장님 방에 들러서 “제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무용인 간담회가 있는데 배석해도 괜찮냐?”라고 여쭤봤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맞죠? 제가 같이 동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지금 그것을 해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필요하면 사적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른 토론이 있습니까?

서영수 위원 : 이것은 제가 정식으로 예술위원회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기 예술위원회도 그렇고 9기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10기, 11기, 12기 위원회도 계속적으로 심의 관련해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예술계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신 분들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예술위원으로 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차원으로 법적으로 또 예술위원회 내부의 규정, 사회적으로 관습적인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아주 정확하고 면밀하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규정만 가지고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관 차원에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셔서 저희들이 운영규정을 바꾸든 더 구체화를 시키든지 해서 위원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심의에 올라오면 자기는 그냥 회피하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곡하고 법에는 어긋나지 않는데 그냥 “시끄러우니까 내가 회피를 하겠다.” 이런 것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기준대로 명확하게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중요한 말씀 잘 접수하고요. 지금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 문제는 위원회의 특성상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 그럴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견 주신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 규정, 관리

규정 그리고 법적인 가치 규정에서 내용을 조금 더 면밀히 법적자문과 함께 그리고 주무부처와 함께 모든 것을 한번 더 세심히 살피고 방향을 잡는 계기로 삼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은, 회피는 주관적 자율적 판단의 가치 규정이고요. 제척은 저 분이 분명히 제척사유로 상황이 되는데 제3자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용어가 있어서 회피의 문제를 정서적이냐 법률적이냐를 가지고 판단해서 잣대를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지금 차 위원님 내용 중에 각각 3명의 회피 사유는 정서적,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주관적 여러 정황에 대한 나름대로 고심에 찬 결과를 말씀드린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려하시고 의견 주신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되고요. 이것이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해충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위원님이 없을 정도로 우리 분야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만큼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이 안건에 집중해서 보기로 하고요. 이것에 따른 다른 조탁의 문제는 그다음 논의와 대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조금 더 면밀히 협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의견을 짧게 듣고 안건 부의 전에 토론이 마쳐지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언 위원 : 일단 저는 법무 해석에 의견은 사무처에 전달해 드렸고요. 사무처에서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당황스러운 것은 제가 정서적 입장에서 “그러면 회피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비상임위원으로서 직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책을 받는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질책을 한다는 것보다는 향후 염려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용어상 전달하다 보니까 ‘정서적’이라는 용어가 있었다는 것이지, 이 안에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 해당되어서 이해충돌이라는 규정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법률적 자문을 얻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돼요.’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재판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아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가면 거기에서 결론을 받으면 되고요. 지금은 우리가 상호이해가 충분한 가운데 의결을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 문제가 돼서 소송으로 갔다고 하면 소송에서 법적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면 서로 토론을 해서 이해절충, 협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좋은 대안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이 위원회의 특성인 만큼 소모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견들을 유연하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연 위원 :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들로 의결이나 심의를 하시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영향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받습니다. 외풍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요. 보도자료는 다 읽었습니다. 위원으로서 분명히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서 읽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형평’, ‘공정’, ‘투명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린 것이냐 하면, 형평성에서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의결은 이대로 가고 다음부터 다른 기준을 만든다고 했을 때 오늘 의결한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노이즈를 만들려고 마음먹으면 어떤 부분에서든 노이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저희가 거기에 아무런 해당이 안 되는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반대쪽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리스크가 걱정되는 겁니다. 지금은 전국무용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한국연극협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보도만 있는 것이지 이 의결이 끝난 다음에는 반대쪽의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위원회가 대한무용협회나 전국무용제를 비판하는 모임이나 보도자료. 사실 위원회는 의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나머지 논쟁이나 싸움은 위원회 밖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회가 여기에 휘말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번에 회피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는 것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고 형평성을 가져야만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논란이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의 방향은 이해를 했고요. 위원님들마다 그런 이해의 범위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의견 개진에 대해서 혹시 짧게 요약해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솔 위원 : 별개 아니고요. 말씀을 다 듣고 굉장히 저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조금 다른 얘기를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면 법률적 문제를 검토받았을 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그런데 회피를 하게 되면 밖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회피를 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르코 측에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지금 몇 분이나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저는 어제 왕 위원님께서 올려주신 것을 보고 처음 봤는데 조금 충격적이라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좀 걱정입니다. 마음도 아프고요. 이렇게 의결은 된다고 치더라도 의결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스펙트럼을 가능성 있는 것을 모두 열어놓으면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모든 의견에도 불구하고 일은 진행됩니다.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예단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왜 여기에서 우려하고 여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안건에 집중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요. 두 분 위원님의 회피는 두 분 위원님의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고민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모든 것들을 안고 결정한 회피사항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예단해서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고 또 의결에 들어가고 또 기다려서 유예를 했다가 또 하고 할 일이 아니라서요. 의견의 소중함은 충분히 반영하고 논의하되 그렇다고 이것을 진행해 놓고 회의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대안을 찾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우리는 또 논의를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특정 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연루가 돼서 직간접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보호하고요. 권익에 대한 부분 혹은 명예에 대한 부분, 권위의 부분 혹은 조직과 우리 기관에 대한 부분도 향후 이 회의가 끝났다고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모두 해당되는 새로운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제·규정을 개정할 부분은 개선하고 새로 추가해야 될 부분은 추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염려의 범위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시킬 수 있지만 회피 사유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의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혹시 추가 의견을 아주 요약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김상연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는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기숙 위원님께서 어떤 위원님의 발언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 발언을 철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 독자적으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판단에 오염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김상연 위원님 말씀대로 회피 사유가 나오게 되면 이해관계는 '이'만 있는 게 아니라 '해'도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말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서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빠르게 규정 해석을 통해서 이해관계가 정말 어디까지인지도 명확해져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실 때 내가 이익이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해가 되었을 때 당사자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의견 주신 내용들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들이라서 반드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으로 결과는 만들어내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를 마치고 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될 사안들입니다.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요.

문삼화 위원 : 위원장님께서도 짧게 요약을 해 주세요.

이범헌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언 위원 : 일단 저는 사실 회피에 대한 의견을 자율적인 해석이라고 감사실에서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8월 7일에 회피 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법무법인에 상담을 해서 법무 해석을 한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사무처에 말씀드렸던 것뿐이고요. 이미 저는 회피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8월 한 달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 문삼화 위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신다고 뭐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 안에 제가 너무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서 전달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들은 아르코에서 보호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언론을 잘 읽어보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서 마치 사실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아르코에서 방어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 부분은 많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 더 면밀히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하고 사무처에서 취합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수위가 되면 위원회의 대응 방안도 구축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계기가 많은 발전적인 모색이 되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과제입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김상연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이 100%는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치 앞 세 치 앞을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서영수 위원님도 한국연극협회 회원이시죠? 성기숙 위원님 대한무용협회 회원이십니까? 서영수 위원님이 회원이시면 서영수 위원님도 빠지셔야 되고요.

이범헌 위원장 :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김상연 위원 : 왜냐하면,

이범헌 위원장 : 팩트는 회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임원의 관계에서 설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원의 범위는 아닙니다. 비유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김상연 위원 : 위원장님, 비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정서적인 것이나 어떤 패밀리십이나 어떤 멤버십이 법보다 상위에 있지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리적으로 임원이 아니라 회원이라고 했으면 다른 회원이신 분들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형평성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형평성은 이번에 두 분이 회피하시는 것은 자율적인 권한이라고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자율적으로 판단하시기 전에 앞으로 어떤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회피를 하실 거라면 이것을 기준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의견의 방향은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연 위원 : 다소 언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 보도자료로 인해서 매우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소속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체가 뭔가 밟히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을 안 하려고 하고 있지만 향후 허위 사실이 유포되거나 추측성으로 위원회에 명예훼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스크랩을 제대로 하셔서 나중에 어떤 시점에 가서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무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마무리로 정리 의견을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서영수 위원님이나 저나 협회 회원은, 무용협회는 회원이 1,500명이 된다고 합니다. 1,500명 중에 일반회원 중 1명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어떤 협회 운영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직위를 가진 분들이 이해충돌이나 지원심의운영규정에 저촉이 된다는 해석으로 되는 것이고요. 김대현 위원께서 아까 저의 발언에 대해서 철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대현 위원님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11인의 위원님이 6월 전체회의에서 전국무용제를 비롯해서 예술위 지정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심대하게 영향을 받았고요. 더군다나 7월 31일 전체회의에서 무용 위원님께서 전국무용제 관련해서 비판적인 것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반대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맥락에 대해 후속 발언을 했고요. 국회 지적사항이고 무용인들의 여론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명예훼손적인 느낌을 많이 받고 저도 고통스러웠는데요. 뭐냐하면, 무용협회 사업에 대해서 성기숙 위원이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나쁜 점수를 줘서 그랬다고 발언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무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에 의거해서 사무처와 비상임위원이 1~1.5배수 동률로 추천을 해서 우선순위를 사무처에서 접외해서 심사위원이 결정된 것이지 성기숙 위원 개인이 추천해서 된 것이 아닌데 “성기숙이 추천해서 그분들이 나쁜 점수를 줬다.”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명예가 많이 실추되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삼화 위원 : 지금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성 위원님 그만하시죠.

성기숙 위원 : 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철회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김대현 위원 : 제가 그 말만 드리겠습니다. 주관적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김대현 위원 : 그것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주관적인 사안이고 저는 안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성기숙 위원 : 김대현 위원님도 본인 개인으로 특정해야죠.

이범헌 위원장 : 발언을 종료해 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지언 위원 : 위원장님 저는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속기록에 분명히 기록되었을 텐데요. 저는 한 번도 반대한 사람들끼리 반대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요. 성기숙 위원님이 나쁜 점수를 줬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하는 거죠. 추천한 위원이 나쁜 점수를 줬다는 이야기도 안 했고요. “심의위원님이 성기숙 위원님이셨죠?”라고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의 발언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경에서는 A등급이 나왔는데 한문위에서 특별하게 B등급이 나왔다. 그런데 이 건은 성기숙 위원님이 심의하셨죠?”라고 발언을 했지 그 이후 결과에 대한 발언은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끼리 반대” 저는 이런 언어를 생각해 본 적이 평생 없어서요. 이것은 아마 성기숙 위원님께서 해석적인 방법으로 본인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워딩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써 놓았기 때문에요. 정확한 워딩이 뭐냐 하면 “일부 언론에서 주로 다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시면 저에 대한, 이 회의장에서 저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수정과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여기까지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은 더 이상 없습니다. 충분히 의사 개진을 하셨고 집에 가서 이 말을 못 했다고 후회하지 않을 만큼 기회를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모든 말의 끝을 잡고 말을 하면 아무런 결론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이해관계가 직접적일 때는 회의 석상 이외에서 소통해도 될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회의록과 속기록이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로 왈가왈부해서 규명될 부분이 아니고요. 사무처에서 속기록으로 증명해 주세요. 해당 위원님들한테요. 더 이상 토론의 가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료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됐습니다. 더 이상 발언은 중지고요. 더 부연하지 않으셔도 의결하는데 있어 충분합니다.

성기숙 위원 : 10초만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이 사안에 관계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발언 기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 발언을 안 한 분도 계세요. 그런데 너무 회의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국회도 보셨잖아요. 절제를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성기숙 위원 :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이범헌 위원장 : 다 중요한 것을 절제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요약해서 10초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듣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네. 지금 이야기되는 것은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야기는 증발되기 때문에 속기록을 빨리 제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문건을 하나 드렸는데요. 취지의 발언이라고 제가 해 놓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요. 문건을 드렸으니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 자꾸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아서 정확하게 정리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조는, 지원심의운영규정에 말씀하신 11조 회피 사유가 해당되고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3조를 보시면 공모사업의 심의운영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의 취지의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현장 예술가들이 심의에 직접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저희 위원회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는 지원심의운영규정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운영규정에 제척, 기피, 회피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되게 명확합니다. 제4조의 3인데요. “위원 본인 또는 민법 777조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제척은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이 현재 또는 직전에 임원으로 소속했던 법인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임원’으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아시죠? 그러니까 비상임위원님께서 심의에 참여하셨을 때 의결에 참여하실 수 없는 제척사유를 추가해 놓은 이 3개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회피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2항에 해당될 때 “심의·의결에 회피할 수 있다.”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심의운영규정에 있는 근거 규정, 직간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척, 기피, 회피를 적용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11조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지원심의운영규정 11조도 한번 읽어 주세요. 제가 요청을 드렸으니까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알겠습니다. 11조 회피 관련해서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 자신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심의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 2호는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2년 이내에 심의위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 자문, 용역 등의 계약 서비스를 제공했던 개인, 법인, 단체가 심의대상 사업의 신청 주체인 경우.” 마지막 3호에는 “심의위원이 심의대상 사업 또는 신청 주체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규정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호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원심의운영규정의 회피는 민간심의위원 구성에서의 심의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제척, 기피는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는 법령과 정관 외에는 무조건 운영규정을 먼저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피는 어쨌든 위원님들의 자유의사인데요. 정확하게 지원심의운영규정을 자꾸 위원회 회의 안건의 제척, 기피, 회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사무처 규정 해석은 잘 들었고요.

성기숙 위원 : 며칠 전에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김대현 위원 : 의사 진행 발언을 거친 다음에 발언을 해 주세요.

이범헌 위원장 : 지명을 받고 발언하시고요. 지명받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회의록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충분히 토론이 원만하게 의사 개진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물은 것처럼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토론의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해 주시고 토론 종료에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지언 위원님 회피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까?

차지언 위원 : 네. 저는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후 어떤 논란도 만들고 싶지 않고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해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언론에 부정적 이미지가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무용계가 더욱더 발전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저는 회피를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삼화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삼화 위원 : 회피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문삼화 위원님께서도 회피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삼화 위원 : 다만, 한국연극협회의 임원이 아니었기에, 이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국연극협회과 관련된 것은 앞으로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네. 이번 안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요. 이번 안건 회피에 관한 내용이고요. 의결이 된 이후에는 다시 또 회의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 여러 가지 판단을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안건에 대해서만 일단 회피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진행 위임을 규정에 따라서 최연장자인 구문모 위원님께 의사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의를 모두 마치고 안건 의결 투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님은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구문모 위원님께서 진행을 해 주십니다. 모두 동의하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상연 위원 : 휴식을 하시죠.

이범헌 위원장 : 휴식을 하시겠어요? 의결 직전에 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의결을 마치면 보고안건이니까 다시 또 제가 의사봉을 쥐고 정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피하신 두 분은 나오셔도 되고요. 두 분의 위원님만 이석을 하고 모두 자리에 계시죠? 두 분은 이석을 하고 구문모 위원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7분 구문모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님들, 잠시 규정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운영규

정 제4조의 3이 위원회 의무와 제척, 기피, 회피와 관련된 조항인데요. 말씀드린 제4조의 3에 제5항에 따르면 일부 위원님들께서 제척, 기피, 회피로 안건 의결에서 빠지는 경우 동 안건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이 부분이 빠집니다. 원래 오늘 11인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동 안건에 대해서는 3인의 위원님이 빠지셨기 때문에 동 안건에 있어 재적수는 총 8인의 위원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회피를 하신 관계로 정관 제9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회 규정 제2조 적용 범위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번호 제1225호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조용주 연극무용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용주 연극무용팀장 : 의결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위 창설 또는 주최, 운영주체 대체 불가, 지자체 매칭 등 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예술위 의결을 통한 지정교부('27년~'29년 다년지원) 여부 및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대상은 표와 같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3건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정교부 논의 시 증액 요구에 따른 교부 예산도 확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부터 이미 전차 회의에서 보고드려서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제외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진행 경과입니다.
6월 26일 개최된 422차 회의에서 지정교부 사전 검토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7월 전체회의에서 본 안건이 유보되어 그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의 공정성,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후에 의결하는 것으로 유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보완 진행하여 본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정교부 대상 사업 개요는 전차 회의에서 보고되었던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4번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정교부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계획서 검토하여 지정교부 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지정교부 결정 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액 요구 예산도 같이 검토하여 지원결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2027년 예산은 85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동으로 정부안에서 결정되어 있고요. 지정교부 대상 사업의 지원결정액을 제외한 잔여예산으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지정교부 대상 사업 지원예산 결정액은 향후 국회 예산확정 이후 최종 확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또한 지정교부 취지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해서 지정교부가 확정되게 되면 지정사업은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정시공모 시 다중지원 예외로 적용하게 됩니다.
밑에 붙임자료에서 1번 붙임과 2번 붙임은 전차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지정교부 대상 사업 요구예산 증액 부분은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요구 증액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약 15억 증액 요구가 있고요. 대한민국연극제 6억 8,500만 원에 대한 증액 요구가 있습니다. 전국무용제의 경우 증액 요구가 없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 국내외 초청공연 비용 9억 2,800만 원, 국제 공동제작·유통 지원 1억 5,000만 원, 전문 프로듀서 운영 1억 5,200만 원 등 증액 사유가 있었고요. 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차 회의 시에도 동일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시상금 5,900만 원, 예선·본선 지원금 4,87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7,670만 원 등의 요구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 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지정교부 대상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요구 내용을 취합하는 절차가 있었고요. 취합된 내용은 무기명 처리를 하여 해당 단체에 전달되었고요. 23페이지부터 개선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붙임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각 축제 행사주체들이 개선계획서 회신을 주셨고 그 자료는 28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3건에 대한 개선계획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사항에 대해 수용하였고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전차 회의와 지난번에 자료를 드리면서 제공했던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정 의결이 된다면 이후 교부신청 단계에서 이러한 개선계획은 다시 정돈하여 교부신청을 다시 받을 예정이고요. 다른 공모 선정 사업과 동일한 프로세스 안에서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개선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고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결을 보류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고 피드백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영수 위원 :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원들 의결정족수가 8인인데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8명의 위원들 중에서 회피자가 더 없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3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회피를 하고 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남아 있는 8명 위원들 중에서 이해충돌 문제나 스스로의 양심에 준해서 더 이상 회피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셔서 의결정족수를 정확하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서영수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후에 또 “나는 회피를 했어야 하는데 회피를 안 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요. 미리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김상연 위원 : 지금 서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으로 오늘 의결을 다시 재심의 해야 할 일은 안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재심의가 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것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맞습니다. 지금 의결 보류를 한 다음에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아마도 개선을 요구하게 되면 끝이 안 날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 이것을 진행해서 이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각자가 자발적으로 회피사유가 있다고 보시면 지금 회피를 하시고요. 잠시 기다렸다가 아니라면 의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영욱 위원 : 저는 각자 입장을 밝히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회피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저는 의결에 참여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하실 분만 하시면 되죠.

성기숙 위원 : 논의를 한 다음에 의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서영수 위원 : 논의는 했고요.

성기숙 위원 : 구문모 위원님이 연장자순으로 지금 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논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잠깐만요.

서영수 위원 : 우리가 앞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지금은 의결하기 위해서.

성기숙 위원 : 그것은 회피, 제척에 관한 이해충돌 논의였죠. 지금 조용주 공연팀장님이 이 안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하셨잖아요. 표결에 들어갈 게 아니죠.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 이것만큼 양보를 못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이 없다면 바로 의결을 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왜냐하면 이게 3가지를 엮어서 하면 1년에 46억.

구문모 위원장 대행 :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검토하셨으니까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적시를 하셔서 이 건은 해야 한다고 의견을 달라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사무처에서 설명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6월부터 이 안건이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46억 곱하기 3년을 하면 138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된다는 생각.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과거 2019년에 연극협회에서 원로연극인제가 정산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의결에서 논의조차 안 하고 지정사업에서 배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재부 방침으로 지정사업을 폐지하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공모로 전환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거 이러한 선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냐하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공공기관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연극제는 한국연극협회, 전국무용제는 대한무용협회인데요. 공공이 1개 하고 민간협회에서 2개를 하는데요. 이게 2022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위원님.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려서.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검토 의견이 나왔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칠 수가 없다.”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님. 사무처에서 물론 자료를 작성하느라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 자세히 들어와 있고 설명이 되어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의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회피를 하셔서, 연극과 무용이 두 분씩이잖아요. 그러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문삼화 위원님이 회피를 하셨고 서영수 위원님이 연극 분야로 계신데요. 지난번 7월 전체회의 때도 올해 대한민국연극제가 부산에서.....아시다시피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을 들었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대한민국연극제는 논의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거의 논의가 안 되었죠.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또 무용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차지언 위원님이 회피를 하셨고 저는 의결권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이따가 포기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연극과 무용에 해당되는 지정사업에 대해서 연극은 1인이 참여하시고 무용은 2인 모두 의결권에 참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138억에 해당되는 지정사업을 과거 기재부에서 지정사업을 폐지하고 일반공모로 하라는 것도 있었고 예술위원회에서 실행까지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의 절차적 정당성이랄까 공정성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연 위원 : 일단 성기숙 위원님이 평소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요. 저도 뭔가 통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말씀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제가 모든 세포를 곤두세우고 되게 민감하게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제는 또 다른 논란이나 보도자료로 뭔가 리스크가 생길 상황들을 다 체크하게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협회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의구심만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나 단체에 대해 그들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피로함까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지는데 도움은 됐지만 이번 사안으로 되게 민감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무용 2인이 다 회피를 하셨을 경우 전문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전국무용제 의결을 하는데 있어서 받아본 자료와 여러 가지 의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무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설계되고 행정적으로 정산되고 전반적으로 운영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게 국가정책으로서 사업의 취지와 맞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무용 분야 두 분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의결을 못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의결이 모두 결정이 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의결을 내는 쪽으로 저희가 빨리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저도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기숙 위원님께서 의결을 포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회피사유인지? 아니면 그냥 기권사유인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회피 사유가 되면 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지금 의결을 포기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기권 사유인지? 아니면 회피 사유인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지? 회피 사유면 지금 나가신 분들과 똑같이 이석을 하셔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회피인지 기권인지를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를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의결할 때는 '가', '부', '기권'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어느 것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무처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해관계라는 것은 이로움도 있고 해로움을 끼칠 수도 있는 관계고요. 아까 모든 규정보다 최상위 규정이 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거기에서 4조에 의하면 명백히 제척과 기피에 대한 규정은 친족과 현재 임원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피에 대해서는 정서적이 아니라, 요지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회피 규정에 없음에도 스스로 회피를 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라고 봅니다. 오늘 의결을 위해서요. 오늘의 의결을 위해서 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찬성, 부결, 기권이지 이 3가지가 아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아니면 기권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그게 바로 규정이라는 얘기시죠?

박범수 사무처장 : 네.

임영욱 위원 : 그리고 의결에 참여하시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정족수에 영향을 미치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계신거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범수 사무처장 : 네. 회피면 지금 이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임영욱 위원 : 그러니까 의결은 표현하지 않겠지만 정족수에는 영향을 행사하겠다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

성기숙 위원 : 이것은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세요.

박범수 사무처장 : 네, 나중에 받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다른 위원회나 법령적인 것에 참여를 해 봤을 때 의결권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그게 기권입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닙니다. '가', '부', '기권' 등 3가지가 있고요. 이 3가지 어느 것에도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유권해석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일단 오늘 의결을 하고 나서 유권해석이 아니라 법률해석을 받겠습니다. 저희 사무처의 규정으로는 최상위 규정이 위원회 운영규정입니다. 4조 3항에 근거해 보면.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사무처장님.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체크할 때는 사무처에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범수 사무처장 : 네, 맞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니까 의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기관에 위원들이 의심 사항을 쭉 제공했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외에는 의결하는 게 맞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네, 맞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그 얘기를 안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박범수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네.

성기숙 위원 : 잠시만요. 아까 처장님이 기피를 말씀하셨는데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더 이상 그것은 하지 마세요.

성기숙 위원 : 이 말씀만 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회피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박범수 사무처장 :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할 수도 없고요.

성기숙 위원 :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서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제척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주체가 제외를 하는 것이고요. 회피라는 것은 당사자가 주체들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피라고 함은 그 대상 주체가 A라는 인물은 영향을 미치니까 기피를 해 달라고 해서 사무처에 기피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무용 위원이 사무처 감사관실에 기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규정이 없는데 그 부분을 기피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심의 대상자가 저에 대해서 기피한 바는 없기 때문에 기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그러니까 기권이라고 의사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서영수 위원 : 잠시만요. 기피는 예를 들어서 심의를 받는 사람이 심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회의에서는 ‘가’, ‘부’, ‘기권’ 등 3개밖에 없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맞습니다.

서영수 위원 : 표결에 참석하시면 기권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3개 중에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발언을 몇 개 하겠습니다.
지금 안이 올라온 게 정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지정교부 건에 관해서 '가', '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같이 있는 게 예산증액 문제입니다.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제가 볼 때 빠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안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의 경우 현재 10억을 받고 있는데 25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린 사유들을 보면, 물론 예산이라는 게 다다익선이면 좋겠지만 예경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증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 예산 실링이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전년과 동일하고 85억 예산을 가지고 44개 공연예술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5억을 올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10억으로 그냥 동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교부가 결정된 다음에 사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김상연 위원 : 조용주 팀장께서 지금 예산까지 한꺼번에 의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영수 위원 : 그래서 결정하고 예산을 따로 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김대현 위원 : 바로 수정의결이 되는 건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영수 위원 : 아니죠. 안건은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올린 건을 그대로 동결시키자는 겁니다. 서울공연예술제 10억으로 동결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국무용제는 전년과 동일하게 6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요. 대한민국연극제도 8억 1,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15억으로 올라왔어요. 어쨌든 3개의 지정교부 건이 예산을 과도하게 받아 가면 이후에 있을 공모사업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연극제는 올해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완벽한 행사는 없습니다. 서울공연예술제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연극제도 마찬가지고 전국무용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하는 이상 완벽한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연극제의 경우 거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차피 올해 이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사전에도 한 번 했고요. 이 사업을 실제 교부받는 단계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교부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정중하게 권유를 하고요. 이 사업이 한번 정해지면 3년 가겠지만 매년 저희들이 단서를 달아서 개선이 안 되면 예산을 깎든지 하는 것을 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형태로 해서 대한민국연극제의 경우 워낙 규모도 많고 굉장히 영세한 극단들이 많기 때문에 8억 1,500만 원에서 9억으로 8,500만 원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해서 상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수정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네. 저희들이 패키지로 의결하는 것은 2건인데요. 예산 증액에 대해서 중요한 발언을 하셨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가운데 증액을 하면 다른 데에서 위축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저는 사실 팀장님한테 여쭤볼게 있는데요. 각각의 행사들이 A, A, B를 받았잖아요. 그러

면 대부분의 경우 A를 받는 경우에는 차년도에 몇 %를 올려준다거나 나쁜 점수를 받으면 깎는다는 규정이 있나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이면 일정 비율을 감액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A는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A가 되는 경우가 적고요. S등급.

왕치선 위원 : 그 위의 등급이 또 있나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S, A, B, C, D로 되어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몰랐어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A등급일 때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본인들이 A를 받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얼마가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불가능하군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예.

왕치선 위원 : 네,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말씀하신 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산의 증감뿐만 아니라 1년 단위로 체크를 해서 결과를 보고 더 할지 동결할지를 한 겁니다.

김상연 위원 :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 단위로 저희가 어떤 기본점수를 책정해 놓고 각 항목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넘겨야 2차년도에 무리 없이 진행되는 장치를 마련하는 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얼마를 감액해야 한다, 증액해야 한다는 말씀보다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2가지가 유통 비용이 증대되었는데 외부로 나가는 돈은 얼마든지 써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해외에서 저희가 초청해야 되는 증액은 조금 까다롭게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객 개발비 홍보에 증액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는데요. 홍보 콘텐츠 전략 수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몇천 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대부분 홍보마케팅 회사를 하나 섭외하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유료관객들 티켓 수입이나 점유률이 높아져야 하는 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들을 결과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게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연극제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 증액 사유에 시상금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상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금성 살포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다만, 증액을 하더라도 저번에 위원들이 수정 개선안을 취합해서 전달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 개선한 안이 왔을 때 대한민국연극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시민연극제'라는 채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했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쓴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사업 개발하는 데 있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시상금 같은 데에서 올리는 것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임영욱 위원 : 김상연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저도 대한민국연극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예산 증감에 대해서 우선 주최 측에서 올린 계획안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상연 위원께서 시상금 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은 반대하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이해랑연극제에 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시상금을 올려서 축제가 활성화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기존에 권위가 있다면 거기에 걸맞게 시상금이 가는 게 맞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정교부 건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이유는 충분히 연극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중적인 인지도 달성하기가 멀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시상금을 올린다는 게 실효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정적으로는 제가 개선안으로 제안했던 것은 운영규정에 보면 협회 소속 단체만 참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개방하라고 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개선안이 안 왔어요. “온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요. “비협회단체도 참여를 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단계를 낮춰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제는 우리 협회에 들어온 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상금을 높여버리면 “저기에 꼭 가입해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게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 축제 자체, 그래서 많은 예술인들에게 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협회의 입지를 쌓는데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유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본선지원에 4,8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요. 그러면 예선 참여단체에게 30만 원씩을 더 줍니다. 미미하죠. 질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되고요. 본선에도 100만 원 정도 더 주는 정도라서 역시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에도 7,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협회 차원에서 전국단위 축제를 모아내는 것도 힘에 부쳐 보이는 것을 과연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국제교류를 신설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지는 이번에 결정하기보다 계획안을 받아보고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 개발에 1억 6,0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관객 개발은 2가지입니다. 홍보를 늘리겠다는 것과 전야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홍보를 늘리겠다는 개선안을 보면 다 SNS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돈을 전부 다 전야제에 쓰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 또한 전야제를 한다고 일반관객들이 더 많이 올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저도 증액은 조금 더 협의를, 이번에 개선안이 오고 간 것을 보면 팀에서 수고를 해 주셔서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로를 계속 유지하면서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저도 동결을 하거나 진행상 원활함을 위해서 서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9억으로 맞추는 정도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상연 위원 : SNS도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료관객화의 비중을 높여서 홍보의 효과를 지표로 나타내면 충분히 예산의 투입가치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증액과 관련한 것만 논의 중인가요?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전반적으로요.

김상연 위원 : 한국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들의 수정개선안을 상당부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해서 올려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데요. 대한무용협회는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방안 없이 그냥 “시민 친화적 공연을 만들겠다.” 정도의 큰 방향이라서요. 이것은 나중이라도, 아까 조용주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부 전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 연극제나 무용제의 아쉬운 부분들은 계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체크하고 그쪽에 전달을 하셔서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팀장님께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열심히 이런저런 개선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위원님들보다 조금 일찍 들어와 있어서 위원회의 경험이 조금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모든 문제의 내용을 담아서 그들이 시행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인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회의록에 남을 것이고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고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는지를 과연 누가 어디까지 체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지금 이 사업 때문에 오랫동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마음만큼 사후 집행과 이행을 사무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이만큼의 열정을 실행과 확인에 투자하실 것인지를 저는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사용한 에너지가 너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고민해 주시고 사무처와 같이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욱 위원 : 왕 위원님께서 개선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개선안을 받아본 것. 이러한 목표를 두겠다는 게 어떻게 구현될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이지만 이렇게 목표를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는 게 평가를 해 나가는데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김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균형을 맞췄으면 해서, 사실 이래서 한국연극협회는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협회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김상연 위원님께서 높이 산 면이 있다면 저는 좀 아쉬운 면도 있었습니다. 한국연극협회에서 낸 개선안을 보면 “아까 단체 가입 규정의 단계적 완화.”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좀 교묘하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면에서 “공연사업추진단을 신설하고 상시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상설로 운영하게 되면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빠지겠죠.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스스로 협회 위상을 강화하는데 쓰는 것은 아닌지? 이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연극협회에서 낸 개선안에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겠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운영위와 집행위의 외부 인사를 지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것을 원칙화하고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자문위를 만드는데 90%를 외부 인사로 채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거가 남았죠. 그래서 만약 3년에 걸쳐서 하지 않으면 “왜 안 했냐?”라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무용제는 지역 예선을 지역무용제로 돌리고 있죠. 검색해 보면 다 지역무용축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극협회는 다르죠. 본인 협회 가입 단체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국무용제는 거기에 더해서 “본선과 심사규정을 본선, 예선을 공유하겠다.”라고 했어요. 일관성을 갖겠다고 얘기를 했고 역시나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현재도 외부 인원 50%를 운영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화 하고 명문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가 잘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느 협회든 간에 우리가 제안한 개선안들을 잘 받아들이고 명문화 하면 그 기준을 가지고 지원교부에 근거가 되는 기준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왕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오늘도 다른 건 때문에 회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직원들의 업무 비중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인력이 충원돼서 할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해서 나중에 의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 토론하기는 어렵고요. 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마 직원들께서 “실행이 가능한지?”, “이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일단 사무처에서 이번에 개선계획을 각 주체들한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주체들 입장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술경영지원센터도 그렇고 이것들을 어떻게 기존 사업과 서울아트마켓, 리바운드 등과 엮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더 구현해 보겠다는 것도 이번에 사업개선 계획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연극제도 여기에서 나온 얘기들 외에 그런 지역과 그 지역의 예술축제 아카이빙이나 시민연극을 확대하겠다는 다양한 개선계획 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과 개선계획으로 한 부분들이 내년도 전담심의위원회에서 또 평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타 장르의 위원님이더라도 대한민국연극제나 전국무용제, 스파프에 대해 계속 참관해 주시고 전체적인 의견을 위원회에서 논의하셔서 피드백을 주시면 한해 한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영욱 위원 :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개선안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들이 정리가 돼서 실제 사업이 이루어질 때 전담심의관이나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대현 위원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개선안이 제안되었을 때 저는 의견을 간단히 냈어요. 저희가 운영위원회 등 어떤 비율을 얘기하게 되면 사업의 내용을 지원기관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정하되 외부에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나온 개선안들이 어느 정도 그 요건에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 하겠지만 이렇게 개선의 움직임을 보인 게 좋고, 또 그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점차적으로 매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말씀을 좀 드릴까요?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무처에 여쭙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회피를 하신 위원님이 의견서를 낸 게 협회 쪽에 전달돼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와 제가 5쪽짜리로 제출을 했거든요. 정창호 팀장님과 조용주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용주 연극무용팀장 : 우선 위원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 24페이지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무기명 처리해서 단체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차 위원님의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회피 여부와 상관없이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별도로 거르는 절차는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위원님께서 주신 개선의견이라는 제목의 자료는 단체한테 제공을 전제하고 만든 자료가 명백히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전달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의견서를 요약해서 목차만 말씀드리면, ‘예술위 지정사업에 대한 위원회 전체의 의결안건 규정 미준수’,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 절차의 문제점’, ‘논의방식의 한계 및 부적절성’,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무용계의 현장 비판 여론’ 등 단체의 개선 이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신 게 아니라고 판단돼서 단체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왜 여쭤봤느냐 하면 차 위원님이 제출한 것에 대한 회의자료에 반영한 것이 구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저희한테 질문으로 던질 게 아니라 차 위원님의 의견서를 협회에 전달해서 협회에서 반영된 팩트를 저는 궁금해한 것이고요. 저는 분명히 5쪽짜리를 제출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도 저는 분명히 6월 전체회의에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요. 절차의 정당성에서 나중에 또 하나의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 사무처에 정병국 위원장 시절 전체 업무보고, 현장토론회 때 전국무용제에 대해 지적이 2~3년 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 운영방식, 지원금액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게 무용계 현장에 공유가 된 상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협회가 주도하는 것에 대해 대체 불가성.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성 위원님, 지금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 사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 토론이 끝나면 의결로 넘어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거든요. 다시 그것을 또 '제척이다.'라고 얘기하면 진행을 못 해요.

성기숙 위원 : 위원님들이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발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영욱 위원 :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사실 부분이 확인 되어있는. 아까 역사도 쭉 훑어 주셨는데 자료에도 들어 있고 거듭 들었던 부분이라서요.

서영수 위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했던 지정교부 3건에 관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결정하는데 따라서 아까 제가 제안했던 예산안까지 안을 만드셔서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원래 본 안건을 올리고 난 다음에 예산 문제, 앞으로 어떤 조건을 걸어야 되는지는 전체를 묶어서 수정안이라고 보면 되겠죠.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하고요. 우리가 나중에 검토하는 절차를 밟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구애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속기록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와 위원들 간에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138억에 대한 지정사업을 결정하는 회의인데 시간에 구애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위압감을 받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자유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무용 분야가 여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한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서 위원님께서 시간 얘기를 했지만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내용 자체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거든요.

서영수 위원 : 성기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들은 6월부터 계속 듣고 있잖아요. 충분히 다 알고 있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니까요. 앞전까지 3인의 위원이 회피를 하면서까지 했던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성기숙 위원 :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6월에도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제가 사무처에 요청드리는 겁니다. 협회가 '대체 불가성'이라는 판단과 이것이 2~3년 전부터 전국무용제에 대한 개선 공론화가 되었는데 지금 지정사업으로 3년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무처의 판단이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또 오늘 건설적이고 개선에 대한 좋은 방향. 아까 3년인데 1년 단위로 평가를 정확하게 해 보자는 것은 좋습니다.

임영욱 위원 : 위원님 죄송한데요. ‘대체 불가’ 단어 자체는 안건이 올라올 때 사무처 입장을 밝혔고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간을 굉장히 노력하면서 많이 보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의결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토론이 없으면 해당 부분을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수정의결보다는 지금 안건 제안 중에 지정 의결을 하면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수립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소통하고 평가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잖아요. 그 부분은 사무처에서 대상한테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까지 논의 결과로 하면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정 의결을 하고 금액은 예경 10억, 한국연극협회 9억, 대한무용협회 6억으로 결정한다는 게 의결주문이 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사실 금액을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을 동의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체에서 신청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저희 사무처가 판단해서 금액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의결을 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결정하시면 됩니다.

김대현 위원 : 그러면 이후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회 예산이 확정되면 가능한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저희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아직 8월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안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고 국회 확정된 상태도 아닌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회의록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 비로소 이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회의 결정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절차가 있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조용주 팀장이 그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고 안건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봤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의결하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반영해서 한번에 의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네. 그러니까 행사별 예산금액은 국회 예산이 확정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니까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장님, 행사별 지원액은 지금 일단 가안으로 결정해 주시고요. 만약 극단적으로 국회에서 연말에 예산을 확정할 때 전체 축제사업 예산이 갑자기 반으로 삭감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때 조정 여지를 남겨놔서 그때 최종 확정을 하는 걸로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그러면 서영수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서영수 위원 : 스파프 10억, 대한민국연극제가 작년까지 8억 1,500만 원을 받았는데 8,500만 원 증액해서 9억 그리고 무용제는 전년 동으로 6억을 제안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위원님들께 여기에서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감안하셔야 할게 스파프 같은 데는 그냥 예경에서 예산을 설정해서 그냥 그 금액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예술위에서 6억을 지정사업으로 해 버리면 지자체에서 10억도 붙고 15억도 붙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2배, 3배가 붙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영수 위원님이 잘 아시고 저와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 위원들도 협회가 집행하는 것에 대한 권력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저는 이것과 함께 무용협회의 체질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수 기득권이 다 갖고 있고 협회가 거의 경연제지만 부대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정체성에서 많이 벗어나 있고 “지역 활성화를 30년 동안 했냐?” 지역의 무용은 더 퇴행되었고 황폐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년 전에 브니엘예고 3명이 희생된 사건의 원인분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협회가 독점, 중복, 다중지원을 한 것으로부터 여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아시다시피 정시공모나 계기성으로 2,000~3,000만 원을 지원해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전국무용제를 없애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연극 분야. 저는 연극 분야는 나름대로, 올해는 부산연극제가 그렇다고 보지만 대한민국연극제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연극, 무용은 생태계와 현장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판단해서 별도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서영수 위원 :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들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오늘은 지정교부 건과 관련해서 예산까지 포함해서 의결하는 것이고요. 이후 중복지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중복지원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85억 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안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월에는 지정교부 건을 해결하고 9월에는 중복지원 건을 해결하는 등 단계적으로 해결해서 이 사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로드맵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여기에서 찬반, 기권을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 한번만 더 언급해 주시고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가급적 찬성, 반대, 기권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욱 위원 :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표의 처리는 기권으로 되는 겁니까?

박범수 사무처장 : 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또 하나는,

성기숙 위원 : 제 마이크를 누가 끄나요?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동시에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세요.

성기숙 위원 :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그것은 사무처에서 판단을 법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데요. 의결할 때는 가, 부, 기권 등 3가지입니다. 3가지 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결에, 그러니까 가, 부, 기권 등 3가지 중에 어느 것에도 참여하지 않겠다.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도 위원회의 직무 중에 하나입니다.

임영욱 위원 : 제 질문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이 의결이 성립을 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 종이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정족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표를 가지고 있고 내지 않았을 경우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나온 정족수를 충족시킨 의결이 의결로 성립하는지만 확인되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범수 사무처장 : 제가 회의 참여 경험상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통상적으로 기권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라고 표결해 주셔도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가'는 찬성, '부'는 반대, '기권'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사표명을 안 하겠다.

임영욱 위원 : 위원님, 그래서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8인으로 했는데 찬, 반, 기권을 더했는데 참여한 의결 인원이 1명이 비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 자체가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서영수 위원 :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만 번의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안 하실 것 같으면 회피니까 본인 스스로 나가시면 됩니다. 의결에 참여하시면 만약 아무것을 안 하시면 기권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저도 수 만 번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위원님보다는 약소하게 의결하는 회의에 참여를 해 봤는데요. 가, 부, 기권이고요. 거듭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회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권도 아니고 의결권을 안 하겠다는 것도 직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잠시만요. 지금 임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여기에서 누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결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미칠지는 보고 사무처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 얘기는 여기에서 의사표명을 하실 때 손을 들어서 하실지 종이로 하실지도 결정해 주세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처장 : 그것은 사무처 권한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됩니다.

김대현 위원 :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연결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예술위 김원 대리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위원들은 의결 출석률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달성률이 있어야 되는데요. 의결을 지금 안 했을 경우 출석률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이 경우 가, 부, 기권이 아니라 의결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이 연결돼서 위원의 의무가 맞는가? 지금 위원의 직무라고 하셨는데 위원의 직무에 의결에 참석하는 게 위원의 직무일 텐데요. 지금 의결을 안 하는 게 위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사실 저희 위원회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표결에는 반대, 기권만 있다는 규정도 없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성기숙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의사개진에는 참여를 하겠는데 어느 쪽에도 투표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권이 안건에 대한 판

단을 유보하겠다는 적극적 의사표현이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고 싶지 않다. 다만, 나는 의견을 내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다른 사례에서 보면 재적위원에는 포함이 되는데 어떤 것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사례에는 없었고요. 우리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위원회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법이다.”, “적법이다.”라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기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대표를 행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지지를 하지는 않겠다는 것은 명확한데 어떤 쪽도 선택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의사표현을 보존해 달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재적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재적위원 표수에는 카운터가 되어야 하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김대현 위원 : 그러면 위원회 직무가 맞는 겁니까? 만약 어떤 위원이 계속 의결 자체를 미루고 회의에만 참여하게 되면 그 위원은 위원회 직무에 참여하게 된 겁니까?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적절하냐 아니냐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판단이 다를 것 같습니다.

김대현 위원 :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하면 뭐라고 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큰 부담입니다. 심리적으로 부담입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로 하실지도 얘기해 주세요.

서영수 위원 : 종이투표로 하겠습니다. 그게 정식인 것 같아서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지금 투표용지가 가, 부로 되어 있는데 기권은 기권이라고 써 주시고요. 의결권 불행사로 적어주세요.

(16시 53분 무기명 투표 및 개표)

구문모 위원장 대행 : 팀장님이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네. 위원 8인이 투표를 해 주셨고요. 7표 가, 1표 불행사입니다. 그러면 재적위원 과반수가 5인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이 안건은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

구문모 위원장 대행 : 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구문모 위원장 대행 :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56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이범헌 위원장 :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예술지원개선 소위원회 임시회의 및 1,2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문삼화 위원님께서 보고를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시고 차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네. 예술지원개선 소위원회는 저희 위원님들 모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보고안건은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5일에 임시회의가 열렸고요. 그때 주요 논점은 분야별로 따로 만나서 공고로 나갈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체크를 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각각 분야별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등 따로따로 모임을 갖고 공고문.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8월 21일에 2차 소위원회를 했습니다.
이때는 그 전날 밤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관계로 굉장히 뭔가 확정적이라는 것보다는 “어젯밤에 갑자기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상황에서 약간의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분야별로 논의사항은 여기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9월 11일과 9월 18일. 9월 11일은 오전 10시고요. 9월 18일은 9월 전체회의 날짜죠. 그때 아침 10시 30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왜냐하면 공고문이 늦어도 10월 초에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두 차례의 회의를 더 갖기로 했습니다.
전담심의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은 보완 수정해서 이 제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담관, 전담심의관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한다면 뭔가 항목을 약간 차별화 하는 걸로, 그런데 현재 사무처의 상황은 예산은 늘어나고 인력은 없는 상황에서 전담심의관을 실제로 할 수가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후보 추천. 심의위원 추천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위원이 2인인 분야는 위원 1인씩 추천하고 사무처에서 1인을 추천해서 가는 것으로 했고요. 다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비상임위원과 사무처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의 장점과 단점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요. 결국 예비예술인 사업은 저희 생태계. 생태계구축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산실은 무용 대본은 일단 일반적인 희곡과 성격이 다르고 대본공모 자체가 사실은 극작가 직업인을 지원하는 관점이 강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대본공모에 무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기타 논의에서 저희 비상임위원, 저희 위원들과 문체부의 직통 라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만 던져주고 인력은 안 주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직통 라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당장은 지원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완전히 개념을 바꾸는 것을 하고 싶었으나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마땅치가 않아서 그것은 2028년을 위한 공모사업에는 반드시 저희 9기 위원들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다른 차원의 제도개선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기로, 하지만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정 때문에 9월까지는 그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요약해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수로 지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모두 보고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성기숙 위원 : 말씀드리겟습니다. 소위원회가 2번 개최되었는데요. 문삼화 소위원장님 설명처럼 1번은 대면으로 참여했고 1번은 몸이 아파서 참여를 못 했고 후속으로 의견서를 내겠다고 해서 드렸는데 추후에 사무처에서 별첨으로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 자료에는 반영이 되지 못했고 별첨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예술위 지정사업을 하면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향후 중복 다중지원 1개 단체에 1개, 2개. 이것을 면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문삼화 위원 : 성기숙 위원님,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요청을 하신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별첨으로 올려주신 것을 회의록에 항목별로 녹여서 의견을 합쳐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회의록은 그야말로 회의록이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개인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이런 결론이 났다는 것이 회의록이기 때문에 지금 성기숙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거기에 녹아내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별첨으로 주신 것은 다 읽어봤습니다. 굳이 여기에서 읽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시면 인지하신 것은 저도 확인이 되었고요. 정리를 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굴욕감 같은 것. 저도 나름대로 공모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범헌 위원장 : 충분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이렇게 제 발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심리적 압박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돼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해야 되는 것이지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데 저는 6기인가 7기 속기록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이 자리에 와서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이 아니라 “전차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있었구나.”라고 공감하는데요. 아까 박범수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변곡점에 있는데 향후 예술위원회가 참여, 분권, 자율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민간자율로 출범했을 때 이런 체제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굉장히 심리적 압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과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감안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사하는 간절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 말씀이 아니라도 제가 취지 방향을 위해서 토론의 여지를, 견해가 다른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계시지만 충분히 토의를 하게 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논의의 합의체라는 기준을 잘 존중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그런 부분적인 것에 너무 확대적으로 불편해 하지 않으셔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의 회의체에 대한 존중과 권위는 지켜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추가 의견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의록에 오해가 될 사항이 있을까봐서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사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강제하지 않고요. 다만, 중복된 발언이라든지 회의진행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로 위압감이나 압박감이 없는 위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만 회의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9기 위원회 첫 회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켜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보완하고 더 존중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회의체에 기능과 효율 그리고 발전적인 의미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조금만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방금 전에 문삼화 위원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회의한 가운데 중요시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 서 위원님도 예산 증액 문제를 갖고 얘기를 했고요. 직원들과 같이 하는 AI 관련해서 결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AI 예산에 대해서 예경과 겹치는 문제들이 문체부에서 예산을 제공 받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사실상 저희들은 쉽게, 쉽게 보다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는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체부와 소통창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제기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의견주신 부분은 저도 조금 염두에 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무처가 업무적으로 주무부서와, 우리는 예술정책과가 주무부서고 그 주무부서의 과장님 선에서 주로 사무처의 업무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회의체가 아니더라도 각 분야 장르에 대표위원으로서 그런 의견이나 상호 면담도 필요한 과정이라서요. 지금 현재는 정말 보이지 않는 분주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부처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고요. 위원님들을 모시고 더 큰 틀의 논의할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좀 놓치고 있고 보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소통창구. 혹은 국장님이나 차관님과 면담하는 사항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이 나오는 대로 일정을 빠르게 잡고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하는 기회를 자주 갖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삼화 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굴욕감을 느끼게 할 의도는 없었고요. 그러셨다면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록은 그야말로 모두의 의견을 녹아내서 요약한 것이고요. 성 위원님의 시간만큼 저희들의 시간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두 10분의 1만큼의 몫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성 위원 몫의 N분의 1을 못하게 막았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미 회의가 끝났고 정리가 된 데에서 본인의 의견을 또 다시 피력하는 것이 “과연 절차상 맞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네. 그 정도의 의견 소통을 하고요. 실제로 소위원회는 위원회 본회의와 달라서 회의체나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방향성이 있어서요. 다만 회의록은 반드시 남기되 방식은 소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해 주시는 만큼 곡해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가급적 없는 의사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양해를 바라고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까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어서요.

이범헌 위원장 : 짧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첨부한 자료 중에 다 언급하기는, 효율성을 위해서 요약하자면 아까 “중복다중지원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동일단체 중복지원 폐지는 2026년 문예기금공모 책자에 명기돼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연극분야에 22억 공연장 연계지원 또는 레퍼토리지원 명칭을 사용하던데 이게 아까 2배로 예산이 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소위 때도 “장르 확대를 하자.” 연극 22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음악이나 전통예술, 무용에도 연계레퍼토리나 공연장 연계지원이 필요하니까요. 또 오늘 들으니까 2배로 예산이 증액되었다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서 연극은 연극대로 가되 다른 장르도 확대해서 증액을 해 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담심의제의 경우 존치할 경우에 수월성이나 효과성을 위해서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전담심의를 해 봤기 때문에 존치해서 갔을 때는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심의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사업 재교부 문제에 대해서는 6기, 7기 위원님들도 “이것은 눈먼 돈이냐?”, “위원회가 택배회사냐?”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다단계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나 기재부, 정부안을 낼 때 정창호 팀장님을 비롯해서 회의 때가 아니라도 문제점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나중에 보고안건이 끝나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거기까지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셨을 겁니다. 또한 사전 별첨 자료를 보셨고 사무처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또 중복, 반복으로 강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무처는 거기에 따른 보완 준비. 그다음에 공연예술 22억 예산 증액이 된 부분에 연극이라는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 보니까 공연예술 쪽을 조금 더 보완하거나 조금 더 조절할 게 있다면 충분히 의견을 전달하고 혹은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과정은 충분히 업무의 역량으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요. 지금 이 보고 내용에 대해서 토의나 질의가 없으시면 여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두 번째 보고안건입니다.
2026년 정책혁신 소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서영수 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 예술가의 집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를 비롯해서 4인의 위원과 정창호 기조팀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정책혁신소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1차 논의를 진행했고요. 4가지 안건을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가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안 관련한 대응이 우리 소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9기 위원회 중점 방향 및 전략 점검입니다.
세 번째는 문예진흥기금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네 번째는 9기 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제안되는 과제들을 정책적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문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이제 발의된 형태고 아직 상임위 등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우리 위원회 전체에서는 하겠지만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저희 위원들과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10여명 내외로 해서 전면적으로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의견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예술위 전략체계 이 부분은 현재 예술위 미션이나 전략과제들은 만들어진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현재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사무처 차원에서 다뤄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금 재원 이 부분도 사실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해결점을 찾기는 힘들고요. 예술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9기 위원회 제안 과제 이 부분은 지금 지역예술활성화 부분이나 예술생태계 관련해서 법, 제도 그리고 통합문화이용권 개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소위원회에서 다뤄보는 걸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논의들을 9월에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수기 검토를 해서 외부 위원들 위촉 방안까지 이때 논의를 해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활동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지금 서영수 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사무처의 여러 현안과 전부 개정안에 따르는 해당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일부 문체부에 제안을 넣어놓고 의원실에도 필요에 따라서 제공을 합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 문체부 업무보고 및 2025년 결산 보고에 대한 국회 문체위 상임위에서 저희 위원회도 주요 기관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를 했고요. 다시 9월 1일에 정리 상임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들. 문예진흥법 전부 개정안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압축하고 조금 더 핵심적인 조항별 사항이나 용어들은 사무처에서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조성안에 대한 부분은 국회 상임위의 의원실마다 관심은 상당히 갖고 있고 위원장님 미팅도 잡아서 상견하기로 했고요. 민주당 간사가 확정돼서 9월 1일에 집중적으로 소속 의원님들을 방문하면서 소위원회에 혹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논의된 부분들을 가감 없이 요약해서 소통하도록 하고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들의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서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 중에 9기 위원회 중점 방향 및 전략 점검에 대해서 사무처 차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직원들과 사업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과관리 차원에서 뭘 설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앞에 비전이 있잖아요. 어떤 방향 설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성과 목표를 뭐로 할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항상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위원회 정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직원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하니까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심지어 용역을 외부에 맡기는데 앞이 없으면 뒤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인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다만, 9기 위원회 3년의 임기. 그래서 사실 효율적인 회의체로 거듭나겠지만 그럼으로써 안건과 보고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향후 정책비전. 9기 위원회의 정책지표 방향성은 최소한 설정되면서 압축이 되면 사무처가 지향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요. 각 사업마다 지향점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구문모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것처럼 고민을 해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회의부터는 조금 더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현안에 매몰되지 말고 거시 발전비전도 9기에서 하고요. 9기 위원회에서 제안된 방향이 3년 임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대를 이어서 다음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비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시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고 획기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기구의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어서요. 제가 서영수 위원장님이 하시는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4명이 참여해서 제일 소수가 참여하는 소위원회입니다. 우리 기획조정팀이 간사를 맡고 있어서 회의할 때 자료 등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때 논의를 하다가 외부 위원을 영입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서영수 위원님이 그때 회의 때는 확정을 못 하고 6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찾아보니까 형평성이나 균형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서 외부에 최적화된 전문역량을 가진 분들이 참여하면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역이 중요하잖아요. 지역에 방점을 둔 게 필요하다면 제가 의견을 드리는데요. 지역소위원회도 감안할 수 있을까? 신설도 생각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수 위원 : 우리 소위원회가 너무 많아서요. 제가 지금 참여해야 할 소위원회가 2개나 되고요. 위원회 전체회의도 해야 하고 사전회의도 해야 해서요. 제가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혁신소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모시는 분들은 지역 중심으로 모시기 때문에 지역문화 소위원회도 당연히 이 속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될 것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기숙 위원 : 그날 6명을 지역에서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반대적인 논조로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어서요. 법안이나 미래비전 중심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소위원회를 할 때 중요한 게 문화예술진흥법인데요. 정창호 팀장님이 회의 때 자세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조계원 의원님이 전면 개정안을 했고 지난주인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께서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짧게라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범헌 위원장 : 회의자료로 갈음할 것을 빼고요. 아주 요약한 상황도 필요한 부분은.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오늘 위원회 회의를 종료하고 기타 토의 때.

이범헌 위원장 : 그렇게 해도 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발의해야 될 혹은 우리가 요청해야 될 타깃으로 협의하고 소통이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법률안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해 주도록 의원실과 각별한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의견을 주시면 그런 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본 안에 대해서 접수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재청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세 번째 보고안건인 2027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보고에 대해 정창호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의견을 보충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삼화 위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잠깐만 해도 될까요?

이범헌 위원장 : 네.

문삼화 위원 : 6시에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최대한 속도를 내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너무 지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정창호 팀장님은 좀 요약해서 발표해 주시고요. 조금 더 궁금해 하시면 따로 제안을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사실 보고안건이 중요한 안건이고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 예산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프로세스는 국무회의 의결 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8월 말에 정부안 확정 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비로 부탁드리고요. 이 안은 8월 말에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은 '문예진흥기금 운용계획 정부안 보고'라는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만들었을 때 수립 경과는 아시겠지만 2026년 5월 30일에 수입과 지출이 완전히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서면 의결로 받았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5월 30일이고 이후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추가 심의 등을 해서 6월부터 8월 20일까지 정말 엄청난 일정으로 협의하고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2027년도의 기금 운용계획안의 편성 주요 이슈는, 저희가 처음에 좀 힘들었던 것이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이 기초예술진흥 쪽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요.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주도 성장이나 청년일자리, 취약 분야 육성 등 국정 아젠다와 연결시켜서 저희가 예산을 획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육성 발굴사업 등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얘기했습니다. 특히 아까 성기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와중에 저희가 단순 재교부 사업을 가급적 일반회계로 이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지역과 중앙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예술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을 따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예산은 획득했는데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아르코의 역할로 과연 지역재단에서 하지 않는 중앙 단위의 정책적 육성 영역.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무엇이고 아르코가 커버해야야 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비평담론 구성이나 글로벌 공동 창·제작이나 문학 쪽의 창작실이용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요. 이번에 2027년 주요 정부안 주요 결과를 보면 기금편성 규모는 7,000억이 좀 넘습니다. 전년 대비 694억이 증액된 상태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편성 규모에서 사업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5,89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3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서영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0년간 예술창작지원과 인력육성에서 창작적 성격의 지원금액이 10년간 연평균 1.3% 정도 상승되었다면 이번에는 거의 예산반영이 33%로 되게 비약적으로 많이 반영되었다는 점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작지원을 보면 전체적으로 22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32.7%입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획득했다고 보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문학 쪽에 우수작가 창작지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신진이나 유망, 중견작가. 예전에 아르코펠로우십으로 중견작가 중심으로 지원되던 부분을 단계별로 나눠서 기존 6억 원에서 13억을 증액시킨 19억입니다. 오로지 작가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그다음에 문학창작 쪽에 문예지 발간지원 같은 경우에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료 부분의 인상과 발간료 지원이 일부 포함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좋은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글로벌 창작 활성화 부분의 1억 원 신규는 소위 말해서 제가 일전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외국인 대상 한국문학에 대한 신춘문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각예술도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중견작가프로모션지원밖에 없었던 작가지원이 우수작가 창작지원으로 3억에서 23억 원이 증액된 26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진작가 35명, 유망작가 20명, 중견작가 15명으로 해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게 있습니다.
비평지원도 1억에서 3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건축물미술작품 공공미술은 기존에 포탈 운영만 하던 3억만 갖고 있었다면 저희가 8억 원을 증액시켜서 11억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포탈을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뭘 할 것인지? 데이터를 정리해서 정확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공모 대행 부분의 운영비용이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건축물미술작품 제도에 관한 운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반영되었을 때는 앞으로 저희 쪽의 예산이 많이 활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중장기창작지원이 3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는 90억 규모의 60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고 30억 증액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다년지원이지만 공모가 다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공연예술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게 공연장연계 연극 대표작 육성지원 4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모델 개발에 있습니다. 수익모델 개발에 있고 2년 지원이고요. 공연단체와 전문PD와 공연장이 하나의 패키지가 돼서 기본적으로 특정 작품에 대한 30일 이상 공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 지역, 지역의 비중이 조금 더 높고요. 60%로 조금 높고 단위당 2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기존에 연극 쪽이 특히 다회를 지원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실험적으로 해서 연극단체가 자생력 있게 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창작지원 중에 연계 창작뮤지컬 대표작 육성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보통 뮤지컬이라고 하게 되면 라이선스나 내한공연, 대형공연 중심으로 생각해서 배부른 동네로 생각하는데요. 사실 창작뮤지컬 쪽은 뮤지컬 쪽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창작뮤지컬은 대표적으로 2년 정도 지원해서 건당 2억에서 3억 정도로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대신 30일이 아니라 3개월. 3개월 특정 장소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공연하는 것을 지원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처럼 좋은 사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국제교류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크게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가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까 유병은 팀장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의 사업들이 아웃바운드가 될 것이고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문화중심의 조성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창제작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나라의 인바운드 국제레지던시 공동창·제작 지원을 26억 증액시켰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와서 조사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시물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까지 보여주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 됩니다.
그다음에 다원예술 창작지원 같은 경우 10억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다원예술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창제작 관련된 인프라나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공유가 서로 없고 저변확대를 위한 부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계속 다원예술은 계속 다원예술에서만 계속 움직이게 된다는 부분. 그래서 예술가나 향유자는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매개 기획프로그램, 발표공간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1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12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로 제가 5월에 보고를 드렸을 때 AK대학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교육부 쪽의 예산과 충돌될 예정이 있다고 해서 명칭을 바꿨고요. 결국 이 사업이 예비예술인 대학지원사업. 예술대학지원사업이 74억 원 증액돼서 125%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 연수단원지원도 74억이 증액돼서 159억이 되었습니다.
기타 이하에 나온 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 600억. 이번에 추가를 했을 때 280억에서 600억으로 나왔는데 600억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생활안정자금을 포함해서 복지재단 쪽으로 재교부가 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술가치사회적확산은 반면에 5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58억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예술기록원 아카이브 쪽에 14억짜리 계기성 프로그램 설치용역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동반예술활성화지원, 메세나를 통해서 지원을 하거나 지역에 동반성장지원을 하는 부분이 40억 감액돼서 그 부분이 깎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창작지원과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유지원은 3,276억에서 3,271억으로 5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서울CC골프장운영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뉴서울CC골프장이 이전에는 수익으로 수입금만 잡혔다면 이제는 지출과 수입을 같이 통제하기 때문에 저희 지출 부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골프장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하 예술산업금융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유사하게 16억 정도 증액돼서 계속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예술관광자원화, 한스타일, 해외문화예술교류, 공예문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업육성은 재교부가 되었던 것은 다 순감돼서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외에 아까 보고를 드렸던 지역예술활성화 부분에 대한 215억은 원래 문예기금으로 준비를 하다가 일반회계로 가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체부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 지역대표예술단체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지역의 대표되는 도립예술단이나 대표브랜드를 만들고 키우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일반회계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사업자가 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 하게 되면 연극무용팀이나 음악전통팀이 되게 바쁠 것 같은데요. 다만, 저희가 창작산실이나 중장기창작지원을 같이 관리하면서 뭔가 효율적으로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사업 중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확정되었는데요. 예술로파견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단위에 예술인들을 보내서 기업의 프로젝트를 해결해 주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예술인복지재단에서 하던 게 내년부터 저희 쪽에서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사회적가치확산 쪽의 기업네트워크 후원 결연과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비는 48억이 증액되었는데 핵심적인 것은 정보화가 33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느꼈는데 기금운용비 1억을 증액하는 게 사업비 100억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화가 32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엔카스 부분에 대한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예산편제를 어떻게 개편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만 좌측에 있는 사업단위의 세부사업 내역들이 너무 보기가 복잡하다. 예산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문학과 시각, 공연 쪽이 딱 2가지로 창작지원과 플랫폼 운영. 창작지원과 플랫폼 운영으로 단순화시키고 일종의 편제 이동을 시킨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것은 그림의 왼쪽 아래에 있는 공간활성화 지원 사업도 창작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창작지원의 각각 사업으로 분산이 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기존 예술인력육성의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20억 사업도 문학과 시각, 공연 쪽에 각각 분산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입·지출계획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정부안으로 예정되어 있는 게 7,000억이 좀 넘고요. 이 중에 사업비가 5,897억 그리고 기금운용비가 270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비 총괄표만 5,890억에 대한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사업비 세부 내역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술창작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변동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술인력육성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이 창작지원 쪽으로 스며들었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현장예술인력육성 중에 그때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10억 원으로 확정되었는데요. 얼마 전 결산 국회 때 문예기금이 고갈되는 상황에서 전문무용수센터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국회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도 알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도 마찬가지로 보고를 드린 그대로고 안정자금도 그대로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술의사회적가치확산에서 57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맨 아래 줄에 예술자료수집디지털화 14억 감액된 게 있고 민간주도형 문화예술후원활성화라고 해서 40억 감액된 게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고만고만하게 감액이 된 것이라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 6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향유지원에서 보셔야 될 것은 지금 통합문화이용권이 2026년도 예산이 2,910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정부안으로 3,220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1만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연 반영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복권기금 사업에서 역시 저희 문예기금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청년문화패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에 19세, 20세를 대상으로 360억 규모로 문예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 이게 50억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문예기금 50억은 일단 운영비가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에서 34세까지 올려서 논의되는 내용들은 360억에서 7,900억까지 올라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차피 문예기금이 아니라 요즘 논의되는 미래대응기금 쪽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만약 저희가 받게 되면 전입수입보다 교부 방식이라서 저희가 수탁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서울골프장 286억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는데 필요한 기금으로 수익금에서 들어왔던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수고 많았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을 중심으로 기획조정팀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의 정말 오랜 준비와 8월까지 기획예산처와 협의 조율. 그리고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 정말 노고에 격려와 실질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무처장 이하 전 본부장과 팀장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낌없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의 핵심 사항은 표로 대신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세부사항은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진행이 되어지고요. 여기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래대응기금에서, 지금 기획예산처에서는 국가기금운용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약 2주 전부터 활동을 개시했고요. 그 전에 기획예산처장관님이 급히 문화예술이 거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는데 저하고 다른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운용기금계획에 대한 협의체를 유관부처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직능별, 장르별 구성을 하는데 문화예술은 필수라는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제가 기관장으로서 위원장 활동을 하니까 중복 겸직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입장에 문화예술 현안을 협의할 수 있는 좋은 분을 여성 위원으로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또 대학교수를 항상 추천하는 것보다 여러 활동 기반, 현장, 기획 그리고 우리 예술위원회의 포괄적 입장을 알기 때문에 진솔 위원을 추천드려서 여성 위원 또 젊은 위원으로서 T/O도 맞아서 추천을 드렸고요. 기획예산처의 장관님이 수용해서 회의에 2차례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논의되는 부분이, 원래 문화예술은 항목에 있지 않았지만 다행히 발언권을 잘 얻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우리 현안들의 입장을 잘 개진해 줬고요. 지금 발표한 내용들과 위원들이 제시한 것을 적극 기획예산처에, 그 취지를 모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방향들을 취합하고 진솔 위원을 통해서 공식화하고요. 또 필요로 하는 우리 예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면 올해 2026년도가 추경을 포함해서 약 7,000억 정도. 우리 예술위원회의 총예산이 7,000억 정도 규모인데요.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회의 예산이 1조 4,000억에서 1조 5,000억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 청년예술인패스가 7,500억 정도의 바우처 제도가 국정과제 개념에서 문화예술 수행정책이 되겠고요. 문화누리 부분에서 3,000~4,000억 정도하면 1조 원대가 바우처 쪽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다소 있지만 이렇게 키워지는 것은 위원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획기적인 예산편성이고요. 또 창작예술 기초분야에도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을 사무처장 이하 각 본부 그리고 특히 정창호 팀장의 많은 노고와 현장의 결실에 의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계속 격려를 해 주시고 의견은 가감 없이 주시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체의 내용이고 굳이 외부 오픈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회의체에 대해서는 가급적 공론이 필요한 부분 이외에 대외비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의체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너무 실시간 혹은 필요 이상의 대외비 상황이 노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우리 사무처와 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삼화 위원 : 진솔 위원님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사실 우리 위원회의 잔다르크로 보낸 것이니까요.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6시가 되고 있거든요. 회의 때마다 6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일정이 있으신 것 같고요. 사무처 직원들도 나주로 이동 문제가 있어서요. 이석하실 분들은 이석하라고 말씀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어떤가? 시간적으로 너무 위축되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은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필요하면 이석을 해도 되고요. 지금 지연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남은 상태는 아니라서요. 조금 기다려도 되면 하고요. 그렇지만 KTX 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잘 해 주시고요. 구체적으로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에서 지자체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제 진도군수님이 청와대에 지방정부 협의를 위해서 참석하고 저녁 늦게 미팅을 해서 진도군이 가지고 있는 아리랑예술촌 프로젝트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유스호스텔 리조트 운영이 있는데요. 그 공간의 유휴공간 전부 그리고 예술촌프로젝트의 전부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MOU체결을 통해서 모든 시설기반에 대해 위원회에 운영권을 주는 협약 준비를 하기로 어제 구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관련 부서 7명을 대동해서 오셨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실현이 될 것이고요. 9월 12일 진도의 문화예술축전이 있을 때 민형배 광주전남특별시장님이 함께 해서 MOU협약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부분 콘텐츠로 여러 가지 설계프로젝트는 이미 말씀드린 내용들의 거시적 지표가 있지만 강론적 지표에서는 각 지자체마다 이런 협약에 의해서 확보되고 확보된 것을 필요로 하는 레지던시부터 국내외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구두로 협의 완료를 하고 12일에는 초안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협약식을 갖는 것으로 했다는 중간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금 상세하게 발표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답변의 내용은 마치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마무리 차원에서 짧고 요약해서 제지해 주면 의견을 듣고 폐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습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기숙 위원 : 제가 자꾸 발언을 하게 돼서 발언권을 독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저는 굉장히 정창호 팀장님과 기조팀에서 예산안, 이게 그러면 문체부와 기재부 정부안 확정입니까?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지금 상태는 국무회의 의결 전이고요. 나머지 필요한 서류 작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래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 얘기가 나와서요. 사무처에서도 지난 6월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전문무용센터지원을 없애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용계에 왜곡되어 전달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무용계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적 조직체계를 갖추라는 거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사무처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보니까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민간재단법인인데 전담인력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전문무용수에 전담인력이 배정되어야 합니까?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재교부되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기금이 나가서 관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취지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할 때는 승인을 저희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교부 사업을 담당하는 분으로 0.3인분 정도로 관리는 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냥 주고 말아버리는 게 더 큰 문제니까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은 이해 범위를 조금 더 업무적인 소통을 하시도록 하고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충분히 하되 업무의 기준과 원칙이 있고 과정적인 것은 거기에 맞춰 가면서 하고 보완점을 찾아주길 바라고요. 그밖에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임영욱 위원 : 지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안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서요.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범헌 위원장 : 네.

임영욱 위원 : 지금 저희 외부 언론보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논의된 것만 보더라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중지는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늦춰져도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활동을 시민과 언론이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은 부분 혹은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명확하게 밝히는 게 우리의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 그간에 나온 3개 언론사에 대한 7~8개 혹은 10개 정도의 기사들을 보면 조목조목 해명할 수 있는, 반박이라기보다 대립하기보다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문건으로 해서 발송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일어난 것을 보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논조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다음부터는 다른 대응을 할 필요 없이 그 문건들을 국회가 되었건 다른 대외적인 맥락이 되었건 제시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추후에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시점을 바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무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의 말씀이나 위원님들의 개별의견도 있고요. 사무처의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있고요. 이미 국회 소관위원회 소명자료 요청에 따라서 이미 제출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언론사에도 제출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것은 포괄적 정책방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이제는 위원회에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떤 팩트의 사실관계만큼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해서, 지금 그렇게 또 이해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약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는 처장님 이하 대응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학예술위원회

임영욱 위원 : 언론사의 경우 만약 언론사 측에 발송된 문건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범헌 위원장 : 지금은 위원실과 혹은 해당 기자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사안 이외의 사안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워낙 포괄적인 다양한 정책을 그리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안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사무처에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혹시 자료에 대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하면 보여주시도록 하세요. 추가 의견이 있으면 요약해서 마무리 의견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급적 발언을 아끼셨던 의견이 있으면 받고 나머지는 중복 사안이 되는 만큼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차지언 위원 : 임영욱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확인되지 않은 보도 그리고 마치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게 사실처럼 보도되는 보도에 대해서는 위원회 측에서도 보호를 해 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첫날 생각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는 서약을 한 것 같은데 기록이 나오기도 전에 이 내용들이 보도된다면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의견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것도 확인사항을 위원회 측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고요. 조금 더 압축된 안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또 사무처의 다각적인 대비도 하면서 소통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고요.

박범수 사무처장 : 일단 특정 인터넷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모든 자료를 축적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1번 팩트체크, 2번 반박논리, 세 번째는 언론중재로 갈지?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갈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 극 관여층만 보는 기사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의결이나 의견을 주시면 사무처로서는 당연히 위원님들과 우리 위원회 명예와 권위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시점이나 방식은 사무처의 의견을 맡겨 주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시점과 방식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그리고 그런 사무행정의 관련 사항이 진행될 때는 사전에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꼭 의견을 구하시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외비 문건이라도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측 가능한 그리고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알 수 있게 해 드리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지 못한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고 포괄적 위원회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요약하고요.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성기숙 위원 : 지금 사무처장님의 말씀과 앞서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차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요약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위원회는 순수예술 지원기구로 1973년에 개원이 돼서 문예기금을 지원하는 곳이라서 공정의 가치 구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론의 보도가 팩트에 맞지 않다면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게시를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회가 중계방송을 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논의하는 과정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 11인과 나주 직원이 25명 정도가 참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약 50여 명 정도가 회의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고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도 응한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이 취재한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게 대응하는 것은 우리 예술위에서 제고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시려면 1차적으로는 팩트체크의 잘못된 것을 사실관계를 해서 전달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속기록이 2019년 3월에 공개된 취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책 구현의 투명성을 위해서 현장 요구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요. 문화예술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가고자 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생산적 진통이라고 해석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진통 속에서 의결된 예술위 지정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속한 전국무용제 건이 계속 몇 년 동안 부정적인 비판 속에서 우리 위원이 2명입니다. 차지언 위원은 회피를 하셨고요. 저는 의결 행사 미이행.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정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용분야에 지원되는, 지방까지 매칭되면 3년간 수십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무용의 위원 2명이 참여하지 않고 의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우리 예술위 역사상 좀 불행한 선례가 되지 않는가 싶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써 주신 위원님들 많은 수고를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고심도 하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의결된 사항이고 존중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연팀에서 소위원회 때 말씀을 나눈 게, 그러면 향후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프로젝트 우선순위로 축구협회, 관광협회가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범헌 위원장 : 거기에 비교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런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위원회가 그런 기구에 비교될 만큼, 함부로 그런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있는 팩트 얘기만 하시고 정리하세요. 부연하지 마시고요.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더욱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회를 결부시킨 게 아니고요. 민간의 협회를 얘기한 겁니다.

이범헌 위원장 : 비유도 적절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는 만큼 앞으로 정말 신중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를 타 기구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구에 빗대거나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하시면 위원회로서 우리 스스로의 명예도 실추될 뿐만 아니라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고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축구협회와 위원회를 결부시킨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술계 민간협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건전한 파트너십이 이루어져서 순수예술 지원기구로서 우리 위원회도 건전한 발전. 예술계현장, 무용계 현장에도 발전적으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 서영수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듯이 공정의 가치 구현을 위해서 정시공모도 남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여기에서 마무리 해 주십시오. 의견에 대한 부분은 모두 청취를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의가 없으면 접수하도록 하

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 번째 보고안건에 대하여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이 있으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이것으로 안건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모든 회의 절차를 마치도록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날짜에 대한 사무처장의 확인. 그리고 마무리 전에 전체적으로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많은 느낌을 그리고 많은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사무처의 모든 임직원들이 노고하는 이유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발전하고 나가기 위한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정책적 비전을 위한 것인 만큼 그런 포용력과 회의를 위한 효율성도 앞으로는 조금 더 집약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문모 위원님의 위트 한마디를 전해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석을 하고 들어와서 첫 마디가 위원장님이 회의 주재하는 내용을 중요한 사안이 아닐 때는 나만 이렇게 당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안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의사봉을 임기 중에 맡겨 주십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안건 하나하나 소중하게 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 만큼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신중하다는 말씀입니다. 9기 위원회 발전적인 비전을 저는 믿고 함께 하고 좋은 결실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더 느끼실 것 같아서 저는 큰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에 인사드린 것처럼 신임 박범수 사무처장님과 신임 노조위원장님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온전한 위원회의 틀이 잡혀 나가는 과정인 만큼, 지금 여러 공모도 순차적으로 가감 없이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전에 사무처장은 2026년 9월 전체회의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모두 동의하신 것으로 확정해서 9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본회의실에서 한다는 말씀을 공지해 드립니다.
오늘 노고가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규정된 내용만큼, 협의체라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양해를 하시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고요. 다음 회의 때는 안건과 보고사항도 있지만 이제 정책적 방향, 아까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기 위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금 업무 과정이 지향하고자 하는 지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저의 외부 활동에 대한 것들도 포함해서 그것을 요약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다음 회의 때는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식으로 다음 회의에는 논의에 붙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소 좋은 고견을 준비하셨다가 그때 제안을 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제425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회의종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